

碩士學位論文

*Heart of Darkness*에 나타난 타자성 연구



濟州大學校 大學院

英語英文學科

姜 旻 廷

2003年 12月

# Heart of Darkness에 나타난 타자성 연구

指導教授 金 仙 姬

姜 旼 廷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3年 12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姜旼廷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3年 12月

**A Study of “Otherness”**  
*in Heart of Darkness*

**Kang Min-jeong**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un-hee)**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December 2003

# 목 차

I. 서론	1
II. 타자성의 양상	5
A. 유럽과 아프리카	5
B. 백인과 원주민	12
C. 남성과 여성	21
III. 타자성의 해체	33
A. 말로우의 의식변화	33
B. 타자성 인식과 한계	48
C. 타자성과 여성들	60
IV. 결론	77
Works Cited	80
Abstract	85

# I. 서 론

조셉 콘래드(Joseph Conrad, 1857-1924)는 주변 강대국들의 제국주의 통치 하에 억압과 수난을 당하던 폴란드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불안과 아픔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다. 아버지의 독립 활동으로 인해 그의 가족은 정치적인 감시와 탄압을 받았고,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자유와 희망을 빼앗겨버린 절박한 상황과 부모의 따뜻한 사랑이 필요할 나이에 부모를 잃었다는 사실은 콘래드의 고립과 소외감을 한층 더 강화시키게 된다. 더구나 아프리카 콩고에서의 그의 경험은 인간 내면의 어둠을 더욱 깊게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콩고로 가기 전에는 단순히 짐승에 불과했다 (Before the Congo, I was a mere animal.)”<sup>1)</sup>고 고백했듯이 콘래드는 벨기에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콩고에서의 체험을 통해 19세기 말 유럽 제국주의의 추악한 실상을 직접 보게 되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좌절을 겪게 된다. 억압받고 소외된 인물로 성장한 콘래드는 당시 다른 작가들이 보지 못한 유럽 사회의 화려한 모습 뒤에 감추어진 제국주의의 만행과 가부장적 권력 구조의 모순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

콘래드는 *Heart of Darkness*(1899)에서 인간의 탐욕과 잔악함을 토대로 하여 세워진 제국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이었던 19세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아프리카 대륙, 원주민 그리고 여성을 지역, 인종, 성별 면에서 열등하고 차별 당하며 소외되어 억압받는 타자로 그려낸다. 이들은 어둠을 배경으로 소외, 억압, 광기, 부패, 죽음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에 의하여 악을 상징하는 인물들로 묘사되고 있으며, 아프리카는 제국의 정치적 탄압과 경제적 착취를 당하는 악의 심연으로 그려지고 있다. 말로우(Marlow)는 유럽 중심적인 사고방식

---

1) Jocelyn Baines, *Joseph Conrad: A Critical Biography* (London: Weidenfeld and Nicolson, 1960) p. 119.

에 젖어 있어서 아프리카 대륙과 원주민을 열등하고 미개한 대상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로 대변되는 커츠(Kurtz)를 만나러 가는 도중 아프리카 대륙의 비참한 현실과 가혹하게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는 원주민의 실상을 보게 되고, 이로 인해 제국주의가 표방하는 문명화 사업의 허상을 느끼게 된다. 더욱이 말로우는 커츠의 죽음을 목격하며 인간 내면의 악성과 자신의 몸 안에 배어있는 무의식적 제국주의의 근성을 인식하고 도덕적 갈등을 겪게 된다. 이러한 타자성에 대한 말로우는 의식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변화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말로우는 아프리카와 원주민을 통해 제국주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지점까지 이르고 있지만 여성을 보는 시각은 일관되게 열등한 타자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남성 중심적 사고방식을 보여준다.

*Heart of Darkness*는 탈식민주의 비평의 측면에서 주로 아프리카 대륙의 착취와 원주민에 대한 억압의 문제에 중점을 두고 평가되어왔다.<sup>2)</sup> 탈식민주의 비평은 제국주의 지배를 받는 종속적인 대상 중 여성을 간과하였다. 예를 들면 아체베(Chinua Achebe)와 파농(Frantz Fanon) 역시 인종 문제를 다루면서도 여성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Heart of Darkness*는 남성 중심적인 시각에서 연구되어왔고, 따라서 여성은 부차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 *Heart of Darkness*는 대부분 말로우, 커츠와 같은 남성 인물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권위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어조가 지배적이어서 여성 인물들은 보이지 않거나 이름도 없고, 무기력하여 이야기에서 제외된다. 브로디

2) 아체베는 콘래드가 아프리카인들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고, 아프리카를 사람이 살 수 없는 원시적인 땅으로 취급하는 "철저한 인종차별주의자(thoroughgoing racist)" 라고 맹렬히 비난한다. Chinua Achebe, "An Image of Africa: Racism in Conrad's *Heart of Darkness*,"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7th ed., vol. 2 eds. M. H. Abrams et al. (New York: Norton, 2000) pp. 2035-40; 호킨스는 이러한 아체베의 주장에 반박하며 콘래드가 아프리카인들에게 동정심을 가졌고, 오히려 유럽인들을 비판하였다고 주장한다. Hunt Hawkins, "The Issue of Racism in *Heart of Darkness*," *Conradiana* 14.3 (1982): pp. 163-71; 와츠는 콘래드가 당시 제국주의 시대의 편견에 영향을 받았으나 *Heart of Darkness*가 그러한 편견을 능가하는 위대한 작품이라고 주장한다. Cedric Watts, "A Bloody Racist: About Achebe's View of Conrad," *Yearbook of English Studies* 13 (1983): pp. 196-209; 패리는 콘래드가 제국주의를 옹호하기도 하고, 제국주의 만행을 비판하기도 하며 작품에서 "이중적 시각(double vision)" 을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한다. Banita Parry, *Conrad and Imperialism: Ideological Boundaries and Visionary Frontiers* (London: Macmillan, 1983) pp. 1-20.

(Susan Brodie)의 지적처럼 “근본적으로 남성적인(primarily masculine)” 작품에 나타나는 여성 인물들은 남성의 기준에 의해 판단되어, 부차적인 존재로 묻혀져 버렸다.<sup>3)</sup>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는 그간 탈식민주의 비평에서 제외되었던 여성에 대한 연구와 이론들이 검토되면서 여성의 역할이 재평가되고, 여성 중심적인 접근이 점차 주목을 끌기 시작하였다.<sup>4)</sup> 1990년대에 하이랜드(Peter Hyland)를 비롯한 스미스(Johanna Smith), 나델하프트(Ruth Nadelhaft)는 각각 *Heart of Darkness*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이 남성들의 상상에 의해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를 비판하여, 여성들의 역할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있음에 따라 이 작품에 대한 여성주의 비평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sup>5)</sup> 최근 문학 비평에는 은폐되었던 타자의 모습과 타자의 침묵을 다루는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구 중심적 사고에 의해 감추어져 있던 왜곡된 타자의 모습을 재조명함으로써 소외되었던 타자가 감정을 갖고,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주체로 등장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탈식민주의 비평과 여성주의 비평을 적용하여 작품에 나타난 타자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런던(Bette London)의 주장처럼 *Heart of Darkness*에 나타난 타자성은 아프리카 대륙의 착취, 원주민의 억압,

3) Susan Lundvall Brodie, "Conrad's Feminine Perspective," *Conradiana* 16.2 (1984): p. 141.

4) 제국주의 역사에서 배제된 여성들의 긍정적인 역할이 검토됨에 따라 "백인 여성과 제국주의(white western women and imperialism)," "영국 여성들에게 미친 제국의 영향(the impact of empire on women in Britain)," "정복당한 여성의 경험(colonized women's experience)," "남성성과 제국(masculinity and empire)," "섹슈얼리티와 제국(sexuality and empire)," "젠더와 식민주의 담론(gender and colonial discourse)" 등과 같은 주제들이 부각되고 있다. Clare Midgley, *Gender and Imperialism* (New York: Manchester UP, 1998) pp. 6-10 참조.

5) 하이랜드는 말로우가 여성 인물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폄하·왜곡시키며, 그의 나약함과 이중성을 감추고 있다고 지적한다. Peter Hyland, "The Little Women in the *Heart of Darkness*," *Conradiana* 20.1 (1988): pp. 3-11; 스미스는 가부장적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의 위선을 파헤치며, 여성들이 왜 침묵하고, 상징화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Johanna M. Smith, "Too Beautiful Altogether: Patriarchal Ideology in *Heart of Darkness*," *Heart of Darkness: A Case Study in Contemporary Criticism* ed. Ross C. Murfin (New York: St. Martin's, 1989) pp. 179-97; 나델하프트는 작품에서 중요하고도 영웅적인 역할을 하는 여성들을 검토할 것을 주장한다. Ruth L. Nadelhaft, *Joseph Conrad: A Feminist Reading* (Hemel Hempstead: Harvester Wheatsheaf, 1991).

여성의 소외와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그 동안 탈식민주의 비평과 여성주의 비평이 어느 한쪽의 억압 또는 소외만을 다루어 타자성에 대한 총체적 파악이 필요하다.<sup>6)</sup> 타자성에 대해 종합적 시각에서 제국주의와 가부장제에 의해 억압받고 소외당하는 타자적 존재에 대한 말로우의 의식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작가가 작품을 통해 비판하려는 타자 의식과 그 한계를 밝히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작품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인식되었던 타자들의 면모를 다루는 2장과, 왜곡된 타자성의 해체와 여성을 분석하는 3장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작업은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여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소외당했던 여성을 중심으로 한 여성주의 비평으로까지 논의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또한 기존의 백인 남성 우월적 시각에 대한 단순한 반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콘래드가 주장하는 타자성의 궁극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6) Bette London, "Reading Race and Gender in Conrad's *Dark Continent*," *Criticism* 31 (1989): pp. 235-52 참조.



## II. 타자성의 양상

타자(the other)는 나와는 다른 사람으로 한 사회의 규범으로부터 일탈되어, 억압받고 소외된 사람을 지칭한다.<sup>1)</sup> 타자들은 주체가 속한 제도에 포함되지 못하고, 주체와의 차이·거리를 나타내는 열등하고 부정적인 일체의 특성을 대표하는 타자성(otherness)을 갖고 있다. *Heart of Darkness*에 나타난 유럽/아프리카, 백인/원주민, 남성/여성이라는 이분법적인 위계구조에서 지역, 인종, 성별 면에서 타자성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이분법적 구조에서의 타자성은 말로우가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었던 유럽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본 장에서는 제국주의와 가부장제라는 지배 이데올로기가 어떠한 방식으로 타자들을 왜곡시키고 있는지 살펴보고, 말로우가 그들을 유럽 사회의 규범 혹은 관습 체계에서 배제시키는 타자화의 과정을 통해 드러난 타자성의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 A. 유럽과 아프리카

19세기 초 낭만주의 작가들에게 아프리카는 순수하고, 이상적이고, 살기 좋은 낙원으로 보였지만 1830년대 이후 빅토리아시대 사람들에게는 죄, 식인, 야만과 무법의 검은 대륙으로 인식되었다. 유럽의 물질적 발전은 인류 문명의 척도였으며, 아프리카는 문명 발전 이전의 고정되어 있는 장소였다.<sup>2)</sup> 문명화

---

1) Jeremy Hawthorn, 정정호 외 역, 『현대 문학이론 용어사전』 (서울: 동인, 2003) pp. 498-500 참조.

2) Peter Childs, "Introduction: Colonial History, National Identity and 'English' Literature," *Post-Colonial Theory and English Literature: A Reader* ed. Peter Childs (Edinburgh: Edinburgh UP, 1999) pp. 11-12.

된 유럽적 시각을 가진 제국주의자들에게 아프리카는 미개하고 야만적이어서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다. 제국주의자들은 그들이 개화시켜야 하는 어두운 대륙 아프리카에서 지배와 종속이라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같은 방식으로 적용한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유럽이 정복하고 문명화해야 할 암흑의 대륙이며, 남성들이 지배하고 싶어하는 여성적인 공간으로 비춰진다.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에 젖어 있는 말로우의 마음 속에 있는 “남성들의 꿈 (dreams of men)” 과 “제국의 싹(the germs of empires)”<sup>3)</sup>은 지도상에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곳을 차지하고 싶은 욕망을 뜻한다. 아프리카는 넓고, 매혹적이며, 순결한 공간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But there was one yet—the biggest, the most blank, so to speak—that I had a hankering after.

True, by this time it was not a blank space any more. It had got filled since my boyhood with rivers and lakes and names. It had ceased to be a blank space of delightful mystery—a white patch for a boy to dream gloriously over. It had become a place of darkness. But there was in it one river especially, a mighty big river, that you could see on the map, resembling an immense snake uncoiled, with its head in the sea, its body at rest curving afar over a vast country, and its tail lost in the depths of the land. And as I looked at the map of it in a shop-window, it fascinated me as a snake would a bird—a silly little bird. (8)

유럽인들은 콩고가 아프리카 중심에 큰 공백으로 남아있는 공간으로 누구나 처음 차지한 사람이 지배할 수 있는 장소이며, 그 곳에 무시무시한 동물이 살

---

3) Joseph Conrad, *Heart of Darkness: An Authoritative Text Backgrounds and Sources Essays in Criticism* ed. Robert Kimbrough (New York: Norton, 1963) p. 5. 이후 *Heart of Darkness*의 인용은 본문에 쪽수만을 밝힌다.

고 있다고 상상한다. 말로우는 지도 위에 “콩고강이 뱀처럼 무섭게 자리잡고 있다(And the river was there—fascinating—deadly—like a snake.)” (10)고 생각한다. 콩고강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 “새(bird)” 로 표현된 “말로우는 유혹하는(The snake had charmed me [Marlow].)” (8) 관능, 죽음, 타락, 공포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다.<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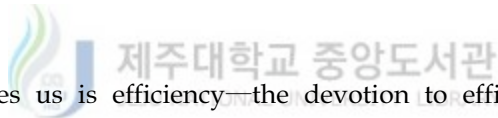
말로우는 프랑스 기선을 타고 아프리카를 향해 출발하면서 “불가해한(enigma)” (13) 모습의 아프리카 해안을 바라본다. 해안은 신비스럽고 알 수 없는 존재처럼 “미소를 짓는가 하면 상을 찌푸리기도 하고, 매혹적이고 수려한가 하면 야비하고 무의미하거나 야만적이며, 늘 이리 와서 알아내 보라고 속삭이듯이 침묵에 잠겨있다(. . . smiling, frowning, inviting, grand, mean, insipid, or savage, and always mute with an air of whispering, Come and find out.)” (13). 여성이 남성을 유혹하듯 원시적 자연 속으로 말로우는 이끌고 있는 해안의 신비로운 매력은 그에게 역겨움을 주는 “혐오스런 매력(fascination of the abomination)” (6)으로 비춰진다.

아프리카 해안은 움직이지 않고, 멈춰있는 듯한 분위기를 준다. “형상이 없고(featureless),” “단조로우며(monotonous),” “흑녹색(so dark green)” (13)을 띤 해안은 불길하며, 형체도 없이 죽은 모습이다. 게다가 “죽음처럼 흐르면서(streams of death),” “무력한 절망(impotent despair)” (14)만을 보여준다. 흑녹색으로 묘사되고 있는 해안은 어둠, 죽음, 절망, 부패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아체베(Chinua Achebe)가 지적하듯이 아프리카는 타자적 세계, 야수적인 세계로 비춰지고 있으며,<sup>5)</sup> 전체적으로 어둡고, 음울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4) 콘래드는 *Heart of Darkness*에서 뱀의 원형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독자들에게 실제적인 인식(realistic perception)의 범위에 그치지 않고, 상징적인 인식(symbolical perception)의 영역을 제공하고 있다. Besty C. Yarrison, “The Symbolism of Literary Allusion in *Heart of Darkness*,” *Conradiana* 7 (1975): p. 159.

5) Chinua Achebe, “An Image of Africa: Racism in Conrad’s *Heart of Darkness*,”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7th ed., vol. 2 eds. M. H. Abrams et al. (New York: Norton, 2000) p. 2035.

콩고강의 모습과 달리 템즈강의 이미지는 제국주의의 이념을 뒷받침해주면서, 활동적으로 전진해 나가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끝없는 수로의 시작처럼 펼쳐져 있는 템즈강(The sea-reach of the Thames stretched before us like the beginning of an interminable waterway.)” (3)은 강을 따라 칼(무력)과 횃불(개화), 성화(종교)를 들고 문명화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남성적 제국주의를 상상하게 만든다. 말로우는 이 강이 온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제국주의자들에게 봉사했으며, 보물을 가득 실은 선박들을 옮겨다 주었다고 회상하며 “위대한 소임(good service)” (4)을 다한 템즈강의 모습을 찬양한다. 그는 “템즈강이 지구의 가장 어두운 구석 중의 한 곳(This [the Thames] also has been one of the dark places of the earth.)” (5)이었지만 로마인들의 침략으로 인하여 문명국이 되었음을 은연중에 내비치면서, 콩고강도 유럽의 지배를 통하여 개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What saves us is efficiency—the devotion to efficiency. But these chaps were not much account, really. They were no colonists; their administration was merely a squeeze, and nothing more, I suspect. They were conquerors, and for that you want only brute force—nothing to boast of, when you have it, since your strength is just an accident arising from the weakness of others. They grabbed what they could get for the sake of what was to be got. It was just robbery with violence, aggravated murder on a great scale, and men going at it blind—as is very proper for those who tackle a darkness. The conquest of the earth, which mostly means the taking it away from those who have a different complexion or slightly flatter noses than ourselves, is not a pretty thing when you look into it too much. What redeems it is the idea only. (6-7)

위의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말로우는 로마인들을 정복자로, 영국의 제국주의자들을 식민지 개척자로 구별하고 있다. 다시 말해, 로마인들은 폭력행위로 식민지를 정복하였지만 영국인들은 폭력이 아닌 “이념(idea)”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복자인 로마인들과는 대조된다. 그는 로마의 제국주의를 비판하면서도, 아전인수격인 이념으로 영국의 제국주의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말로우가 주장하는 이념은 검은 피부와 낮은 코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땅을 빼앗고,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화에 불과하다.

실제 많은 제국주의자들은 아프리카를 착취하면서 그 이유를 경제적 이익이 아닌 이념에서 찾고자 하였다. 그들은 원주민을 개화시키고, 서양의 기술을 전수해 준다는 제국주의 이념으로써 식민지에서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도덕적 이상과 연결시키고, 침략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sup>6)</sup> 호손(Jeremy Hawthorn)이 지적하듯이 제국주의는 이상주의(idealism)를 가장하여 경제적 이익을 숨기고 있다.<sup>7)</sup> 제국주의자들은 거짓된 이념을 정당화하기 위해 아프리카의 원시성, 야만성을 강조하며 유럽에 대비되는 타자성을 부여한다.

말로우는 커츠를 데리러 가는 아프리카 콩고강의 여행을 마치 문명화되지 않은 태초의 세계로 거슬러 가는 것처럼 표현한다.

Going up that river was like travelling back to the earliest beginnings of the world, when vegetation rioted on the earth and the big trees were kings. An empty stream, a great silence, an impenetrable forest. The air was warm, thick, heavy, sluggish. There was no joy in the brilliance of sunshine. The long stretches of the waterway ran on, deserted, into the gloom of overshadowed distances. (34)

---

6) Elleke Boehmer, "Imperialism and Textuality," *Colonial and Postcolonial Literature* (Oxford: Oxford UP, 1995) pp. 36-37.

7) Jeremy Hawthorn, *Joseph Conrad: Narrative Technique and Ideological Commitment* (London: E. Arnold, 1990) p. 182.

“말로우가 콩고로의 항해를 마치 어떤 연옥의 암흑 단계에 들어선 것처럼 느끼고 있듯이(. . . it seemed to me [Marlow] I had stepped into the gloomy circle of some Inferno.)” (17), 콩고강은 문명화된 템즈강과 대조적으로 암흑과 원시의 세계로 비춰진다. 그 곳은 “엄청난 침묵(great silence)” (34)이 흐르고, “꿨을 수 없는 숲(impenetrable forest)” (34)이 있는 공간이며, “공기는 덥고, 답답하고, 무거워 느릿한(The air was warm, thick, heavy, sluggish.)” (34) 분위기를 주고 있다. 말로우는 콩고강을 황폐하고, 인적이 끊긴 어두운 강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어떠한 “기쁨도 없는(no joy)” (34) 공포스럽고, 두려운 곳으로 인식한다. 아프리카는 코를 찌르는 “태고의 진흙 냄새(the smell of primeval mud)” (27)가 나고, 무성한 풀밭과 진흙으로 뒤범벅된 원시적인 공간에 불과하다. 적막감이 흐르는 강,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원시적인 숲(primeval forest)” (27)의 이미지를 통하여 결국 말로우는 문명이 자생하거나 이식될 수 없는 침체되고, 부패한 원시적인 아프리카를 강조하고 있다.

콩고강은 밀림으로 덮여 오지의 어둠으로 흐르면서, 아프리카 전체에 어두운 분위기를 전해줄 뿐만 아니라 남성들을 매혹시켜 어둠 속으로 이끄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묘사된다.

The broadening waters flowed through a mob of wooded islands; you [Marlow] lost your way on that river as you would in a desert, and butted all day long against shoals, trying to find the channel, till you thought yourself bewitched and cut off for ever from everything you had known once—somewhere—far away—in another existence perhaps. (34)

위 장면에서 나타나듯이 말로우는 사막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콩고강에서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느낌을 받는다. “어두 침침한 아프리카 해안이 그

에게 우울하고 무의미한 미혹을 주어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 . the uniform sombreness of the coast seemed to keep me [Marlow] away from the truth of things, within the toil of a mournful and senseless delusion.)” (13) 그의 이성을 어지럽히고 있는 듯하다.

아프리카의 불길한 원시성, 관능성과 더불어 말로우는 밀림의 야수성이 커츠를 타락시켰다고 생각한다.

The wilderness had patted him [Kurtz] on the head, and, behold, it was like a ball—an ivory ball; it had caressed him, and—lo!—he had withered; it had taken him, loved him, embraced him, got into his veins, consumed his flesh, and sealed his soul to its own by the inconceivable ceremonies of some devilish initiation. (49)

밀림은 커츠를 선택하여 포옹하고, 사랑하고, 애무하여 그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소진하게 만들어 버린다. 밀림으로 대표된 아프리카는 커츠의 절제력을 빼앗아 욕망의 늪으로 빠지게 하는 악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성적 카니발리즘 (sexual cannibalism)”<sup>8)</sup>의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 아프리카와의 접촉이 유럽인들의 도덕성과 생명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편견을 가진 말로우는 커츠가 아프리카로 인해 육체적 쇠퇴와 더불어 도덕적 타락을 겪게 되었다고 여긴다.

제국주의 이념에 무의식적으로 물들어 있는 말로우는 아프리카의 원시성, 야만성을 강조하며 아프리카를 암흑의 대륙으로 비하하고 있다. 그는 유럽을 문명화된 중심의 세계로, 아프리카는 악에 젖어 있는 변방의 세계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는 열등한 타자성의 범주에 속하여 제국주의의 지배의 대상이 된다. 아프리카는 그 자체의 고유한 경험을 지닌 곳이 아니라 악의 공

---

8) Johanna M. Smith, “‘Too Beautiful Altogether’: Patriarchal Ideology in *Heart of Darkness*,” *Heart of Darkness: A Case Study in Contemporary Criticism* ed. Ross C. Murfin (New York: St. Martin’s, 1989) p. 185.

간으로 설정되어, 유럽인들을 방해하고 타락하게 하는 어둠, 부패, 죽음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진다.

## B. 백인과 원주민

타일러(Edward Tylor)의 *Primitive Culture*로 대표되는 초기 문화 인류학에서는 인간의 진화를 야만(savagery), 미개(barbarism), 문명(civilization)의 세 단계로 구분하며, 제국주의 문화적 임무를 설명하고 있다.<sup>9)</sup> 당시 유럽의 제국주의자들은 문명화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원주민을 열등한 존재로 치부하여 그들의 복종을 요구하였다. 원주민을 열등한 타자로 만들며 그들 스스로 우월감을 확인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의 미개인을 백인 문명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백인의 의무라고 생각하였다.

제국주의자들에게 원주민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에게 종속되어 굴욕을 당하는 여성과 다름없는 무지하고 열등한 존재로 인식되었다. 남성이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만들어 억압하고 착취하였듯이, 유럽인들은 원주민을 야만적이고 미개한 타자로 여겨 “피부가 검고 낮은 코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땅을 빼앗았고(. . . taking it [the earth] away from those who have a different complexion or slightly flatter noses than ourselves . . .)” (7),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유린하였다.

말로우의 인종차별적 편견에 빠져 원주민을 열등한 타자적 존재로 인식하여 그들을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표현한다. 즉, “야만인(savages)” (16), “식인종(cannibals)” (35)과 같은 경멸적이고, 공격적인 언어로 원주민을 설명한다. 원주민은 “기괴한 가면(grotesque masks)” (14)을 쓰고, “개미떼처럼 움직이고

---

9) Patrick Brantlinger, “Race and the Victorian novel,” *The Victorian Novel* ed. Deirdre David (Cambridge: Cambridge UP, 2001) p. 150 참조.



있다(. . . moved about like ants.)” (15). 또한 “시커먼 것들(dark things)” (16), “검은 형상들(black shapes)” (17)로 묘사되듯이 “검둥이(nigger)” (19)<sup>10</sup>로 표현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질병과 기아로 죽어 가고 있는 원주민을 “적(enemies),” “죄수(criminals),” “일꾼(workers),” “반역자(rebels)” (59)라고 부르며 제국주의의 억압과 수탈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이러한 원주민을 본 후에 말로우는 회계 주임(chief accountant)을 만나게 된다. 회계 주임은 원주민과 달리 “전혀 예기치 않게 우아한(unexpected elegance)” (18) 모습을 하고 있다. 검고 그로테스크하게 묘사되는 원주민과 달리 “하얀 커프스(white cuffs)”와 “눈처럼 하얀 바지(snowy trousers)”를 입고, “깨끗한 넥타이(clean necktie)” (18)를 맨 회계 주임의 단정한 외양은 원주민과의 피부색 차이만큼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말로우는 일행과 함께 암흑의 심연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감에 따라(We penetrated deeper and deeper into the heart of darkness.)” (35), 원주민을 더욱 더 동물적이고, 악마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기에 이른다. 그는 원주민을 자신과 너무나 다른 문명 이전의 선사 시대의 인간으로 간주하며, 그들을 야만적이고, 원시적 본능을 지닌 타자로 인식한다.

The earth seemed unearthly. We are accustomed to look upon the shackled form of a conquered monster, but there—there you could look at a thing monstrous and free. It was unearthly, and the men were—No, they were not inhuman. Well, you know, that was the worst of it—this suspicion of their not being

---

10) *Heart of Darkness*와 *The Nigger of the "Narcissus"* 는 모욕적인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한때 금지 목록에 오른 책들이다. 두 책 모두 남북전쟁 이후에 경멸적인 단어로 받아들여졌던 “검둥이(nigger)”가 사용된 것이 그 이유였다. Candice Bradley, “Africa and Africans in Conrad’s *Heart of Darkness*,” A Lawrence University Freshman Studies Lecture, 24 Jan. 1996 <<http://www.cx.unibe.ch/ens/cg/africanfiction/conrad/bradley/bradley.html>>; “nigger”가 *Heart of Darkness*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는 Dorothy Trench-Bonett, “Naming and Silence: A Study of Language and the Other in Conrad’s *Heart of Darkness*,” *Conradiana* 32.2 (2000): pp. 84-91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inhuman. It would come slowly to one. They howled and leaped, and spun, and made horrid faces; but what thrilled you was just the thought of their humanity—like yours—the thought of your remote kinship with this wild and passionate uproar. Ugly. Yes, it was ugly enough. (36-37)

말로우의 눈에는 마치 동물처럼 소리지르며 소동을 벌이고 있는 원주민이 괴물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괴물(monster)”이란 표현은 원주민을 인간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음을 의미한다. 말로우는 괴물과 같은 원주민이 자신과 같은 인간과 먼 친족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는 괴물처럼 보이는 원주민이 자신과 똑같은 인간이라는 생각에 혼란스러워하며, 그들을 동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괴물과 친족관계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흉측하다(ugly)”고 반복하여 말하며 인종차별적 태도<sup>11)</sup>를 견지한다. 이러한 말로우의 태도는 그가 원주민의 행동을 비인간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But suddenly, as we struggled round a bend, there would be a glimpse of rush walls, of peaked grass-roofs, a burst of yells, a whirl of black limbs, a mass of hands clapping. of feet stamping, of bodies swaying, of eyes rolling, under the droop of heavy and motionless foliage. The steamer toiled along slowly on the edge of a black and incomprehensible frenzy. (36)

이처럼 말로우는 원주민의 함성, 집단적인 손뼉소리, 발 구르는 소리와 그들의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파농(Frantz Fanon)이 흑인과 언어현상을

---

11) 아체베는 아프리카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했으며, 그들을 “형제”로 생각한 슈바이처(Albert Schweitzer)와 달리 고작 “친족”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콘래드를 인종차별주의자로 비판한다. Achebe, pp. 2039-40 참조.

분석하며 흑인이 조잘거리기를 좋아하는 어린 아이와 똑같은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듯이,<sup>12)</sup> 말로우는 원주민이 내는 소리를 어린 아이들이 손뼉치고, 발을 구르며, 고향을 지르는 소리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원주민이 정신병원의 환자처럼 “광기(frenzy)” 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말로우는 원주민의 소리가 인간의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원주민의 언어를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원주민의 소리를 “악마가 벌이고 있는 소동(this fiendish row)” (37)으로 여기고, 반면 “그 자신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좋은 나쁜 그 목소리는 결코 그들의 소리처럼 묵살될 수 없다(I [Marlow] have a voice too, and for good or evil mine is the speech that cannot be silenced.)” (37)고 생각한다. 말로우는 자신의 목소리를 원주민의 소리와 달리 백인 남성만이 갖고 있는 특질로 여기고 있다. 말로우는 이러한 인식 속에는 원주민의 소리는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소동에 불과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의미를 갖고 있는 언어라는 의식이 잠재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는 지배 행위와도 같은 목소리를 통하여 원주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제국주의자의 권위를 내세우고 있다.

말로우는 원주민의 소리를 단지 “불평소리(grunting)” (37)로 여기고, “시간이 없다(I had no time.)” (37)는 핑계로 원주민의 소리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원주민의 생각과 의미를 전달해주는 의사 소통의 수단인 “북소리도 전쟁을 의미하는 것인지 평화인지, 혹은 기도인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Whether it [the rolls of drums] meant war, peace, or prayer we could not tell.)” (36).

The monotonous beating of a big drum filled the air with muffled shocks and a lingering vibration. A steady droning sound of many men chanting each to himself some weird

---

12) Frantz Fanon, 이석호 역, 『검은피부 하얀가면』 (서울: 인간사랑, 1998) p. 35 참조.

incantation came out from the black, flat wall of the woods as the humming of bees comes out of a hive, and had a strange narcotic effect upon my half-awake senses. (65)

북의 지속적인 고동소리는 허공에서 진동하면서 충격을 주고, 주문을 외우는 듯한 원주민의 낮은 소리는 벌떼가 윙윙대는 소리와 같다. 다만 그는 원주민의 소리를 “밀림의 마력(mute spell of the wilderness)” (67)으로, 커츠를 타락하게 한 “야수적 본능(brutal instincts)” (67)의 소리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듯 말로우는 원주민의 북소리를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북소리에 대응하는 증기선의 기적소리를 이용하여 원주민의 소리와 행동을 없애려고 한다.

With one hand I felt above my head for the line of the steam whistle, and jerked out screech after screech hurriedly. The tumult of angry and warlike yells was checked instantly, and then from the depths of the woods went out such a tremulous and prolonged wail of mournful fear and utter despair. (47)

위의 묘사에서처럼 원주민은 날카로운 증기선의 기적소리에 즉각 함성을 멈춘다. 숲에서는 단지 슬픔 가득한 두려움과 처절한 절망의 울부짖음이 들릴 뿐이다. 이 광경은 말로우가 원주민의 소동을 멈추기 위해 기적을 울리자 증기선의 기적소리에 놀라 소동과 함성을 즉시 멈추고, “원주민이 그 공포의 소리를 피하려고 이리저리 날뛰는 아비규환의 장면(They broke and ran, they leaped, they crouched, they swerved, they dodged the flying terror of the sound.)” (69)으로 연결된다. 증기선 소리에 원주민이 놀라서 고함을 멈추고 달아나는 모습은 마치 동물과 같다. 햄프슨(Robert Hampson)은 원주민을 놀라게 한 증기선의 소리가 원주민을 비인간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한다.

The word 'screech' converts the steam-whistle into an animal or bird, just as the 'yells and screams' dehumanize the Africans and reduce them to animals or demons. The immediate response of the Africans to Marlow's use of the steam-whistle reinforces this dehumanization: the subliminal message is of communication on an animal level, but this message does not reduce the Europeans.<sup>13)</sup>

위에서 햄프슨이 설명하고 있듯이 원주민에게 사용한 배의 기적소리는 원주민을 동물 혹은 악마적 존재로 격하시키고 있다. 그것은 타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들의 행동을 비인간화시키는 제국주의의 지배적이고도 강압적인 소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작품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교육에 의해 개화된 화부(fireman)와 조타수(helmsman)가 등장한다. 이들은 식민 사업의 필요에 의해 교육받은 원주민이다. 회계 주임의 화려한 외모를 위해 세탁 일을 하고 있는 원주민 여성처럼, 화부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쓸모가 있다. 그러나 문명인들이 과연 원주민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문명이라는 이념 하에 원주민을 교화시키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해지는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식민 사업의 허황함을 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And between whiles I had to look after the savage who was fireman. He was an improved specimen; he could fire up a vertical boiler. He was there below me, and, upon my word, to look at him was as edifying as seeing a dog in a parody of

---

13) Robert Hampson, "Heart of Darkness and 'The Speech That Cannot Be Silenced'," *Post-Colonial Theory and English Literature: A Reader* ed. Peter Childs (Edinburgh: Edinburgh UP, 1999) p. 206.

breeches and a feather hat, walking on his hind-legs. A few months of training had done for that really fine chap. . . . He ought to have been clapping his hands and stamping his feet on the bank, instead of which he was hard at work, a thrall to strange witchcraft, full of improving knowledge. He was useful because he had been instructed; and what he knew was this—that should the water in that transparent thing disappear, the evil spirit inside the boiler would get angry through the greatness of his thirst, and take a terrible vengeance. (37-38)

여기서 말로우는 원주민 화부를 “개(dog)”에 비유하며 우스워하고 있고, 식민 사업에 흐뭇해하고 있다. 또한 그로 하여금 악령이 무서운 복수를 할 것이라는 미신을 믿게 하여 실제적인 기계의 원칙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말로우는 화부가 비합리적이고 충동적인 원시적 본능을 가진 무지한 인물이며, 악마 같은 자질을 갖고 있다고 여긴다. 이에 대해 힐(Patricia Hill)은 원주민의 검은 피부가 사악한 이미지로 잘못 사용되고 있다<sup>14)</sup>고 비판한다.

원주민 조타수는 문명의 개화로 인해 직접적으로 희생을 당하는 인물로 나타난다. 그는 말로우는 선임 선장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조타수 역할을 하는 건장한 검둥이로, 위급한 상황에서 동물적인 본성을 드러낸다. 조타수는 말로우는 증기선이 원주민의 공격대상이 되었을 때 “고삐 맨 말처럼 무릎을 높이 쳐들고 발을 구르면서 입으로 우두둑 소리를 낸다(. . . lifting his knees high, stamping his feet, champing his mouth, like a reined-in horse.)” (45). 화부를 “개”에 조타수를 “말”에 비유하며, 말로우는 원주민을 묘사할 때 흑백간의 색깔의 이미지와 더불어 동물적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원주민을 비인간화시키고 있다.

14) Patricia L. Hill, “The Dark/Black-Bad, Light/White-Good Illusion in Joseph Conrad’s *Heart of Darkness* and *Nigger of the Narcissus*,” *Western Journal of Black Studies* 3.4 (1979): pp. 272-73.

An athletic black belonging to some coast tribe and educated by my poor predecessor, was the helmsman. He sported a pair of brass earrings, wore a blue cloth wrapper from the waist to the ankles, and thought all the world of himself. He was the most unstable kind of fool I had ever seen. He steered with no end of a swagger while you were by; but if he lost sight of you, he became instantly the prey of an abject funk, and would let that cripple of a steamboat get the upper hand of him in a minute. (45)

위의 인용에서 보여지듯이 조타수는 서구 문명을 교육받은 인물로 스스로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말로우가 없으면 심한 공포에 시달리고 기선을 통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바보이다. 제국주의자들이 교육한 것은 오직 그들의 필요에 의한 것이다. 그들은 원주민의 의존성을 극대화하는 교육을 하면서 지배의 당위성만을 강조하고 있다.

식민 담론은 피지배 민족의 야만성을 맹렬히 비난하여 서구를 모방함으로써 개화될 것을 요구하지만, 그 내면에서는 피지배 민족이 지배 질서와 구분될 수 없을 만큼 발전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중성은 원주민이 개화된다면 서구를 모방함으로써 잠재적인 힘을 보유하게 되고, 그들이 제국주의자들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바바(Homi Bhabha)는 이러한 상황을 피지배 민족이 역사적으로 처하게 되는 이데올로기적 이중 속박이라고 정의한다. 말로우에게 유용한 도움을 주는 흑인 조타수가 희화화되는 것도 그가 흑인다움의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어설픈 서구화되었기 때문이다.<sup>15)</sup>

원주민의 소동에 조타수는 백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제력(restraint)” (52)을 잃고 제 멋대로 행동하며, 그들에게 충을 쏘려한다. 하지만 “원주민이 쏘아대

---

15) Bart Moore-Gilbert, 이경원 역, 『탈식민주의! 저항에서 유희로』 (서울: 한길사, 2001) p. 393 참조.

는 화살은 고양이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것이었다(. . . they [arrows] looked as though they wouldn't kill a cat.)” (46). 조타수는 백인의 흉내를 내며 총으로 원주민과 대항하려 하지만 끝내 원주민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다. 조타수는 죽는 순간에도 자신을 교화시켜준 백인이 자신을 구원해줄 것이라고 믿으며 말로우를 바라본다. 하지만 “말로우는 즉시 그에게서 눈을 떼려 채 운항을 하고(I [Marlow] had to make an effort to free my eyes from his gaze and attend to the steering.)” (47), 조타수가 흘린 피로 더럽혀진 “양말과 구두를 바꿔 신고 싶은 마음만 간절할 뿐이다(I [Marlow] was morbidly anxious to change my shoes and socks.)” (47). 그는 조타수에 대해 검은 사하라 사막에 있는 한 톨 모래알만큼의 가치도 없는 야만인이라고 언급한다.

No; I can't forget him, though I am not prepared to affirm the fellow was exactly worth the life we lost in getting to him. . . . Perhaps you will think it passing strange this regret for a savage who was no more account than a grain of sand in a black Sahara. . . . He had no restraint, no restraint—just like Kurtz—a tree swayed by the wind. (51-52)

말로우는 그의 무의식 속에 원주민의 생명이 하찮은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원주민을 교화시키는 것은 백인들의 필요에 의한 것이고, 원주민의 죽음 또한 재고할 가치가 없는 사소한 것이다. 원주민은 제국주의자들로부터 자체력마저 잃고, 무참히 버려지고 있다. 그러나 만약 원주민 조타수가 백인에 의해 길들여지지 않았다면, 오히려 자체력을 발휘하여 목숨을 잃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인간 개인의 존재를 없애려는 힘에 대항하여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주장한



앨리슨(Ralph Ellison)은 *Invisible Man*을 통해 살아있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흑인을 언급한다.

"I am an invisible man. No, I am not a spook like those who haunted Edgar Allan Poe; nor am I one of your Hollywood-movie ectoplasms. I am a man of substance, of flesh and bone, fiber and liquids—and I might even be said to possess a mind. I am invisible, understand, simply because people refuse to see me. Like the bodiless heads you see sometimes in circus sideshows, it is as though I have been surrounded by mirrors of hard, distorting glass. When they approach me they see only my surrounding, themselves, or figments of their imagination—indeed, everything and anything except me."<sup>16)</sup>

앨리슨의 설명처럼 흑인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인간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흑인을 인간으로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흑인은 왜곡된 거울에 비친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여지기 때문에, 진정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Heart of Darkness*에서 말로우는 원주민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 그는 문명화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원주민의 검은 피부, 미개, 열등, 사악함을 강조한다. 제국주의자들은 원주민의 미개함을 부각시키면서 문명화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원주민의 억압과 고통은 그들을 개화시키고자 하는 백인들의 위대한 임무 속에 무시되었다.

### C. 남성과 여성

---

16) Ralph Ellison, *Invisible Man* (New York: Vintage Books, 1972) p. 3.

19세기 제국주의의 극단적인 지배 논리는 여성에게 가부장제 하에서 지배와 종속이라는 관계로 적용되어, 여성은 남성 중심체제에서 억압받고 소외당하였다. 다시 말해, 당시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성차별적 사고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여성들은 강압적인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침묵하고, 순종하고, 희생당하는 타자의 위치에 있었다.

*Heart of Darkness*에 나타난 여성 인물들은 가부장제 사회의 일원이었던 말로우의 시선에서 왜곡되고, 폄하되게 묘사되어 열등한 존재로 보여진다. 작품에서 여성들은 의미 있는 말과 행동을 하지 못하는 수동적인 존재이며, 남성들의 세계에서 근본적으로 배제된다.<sup>17)</sup> 선원 말로우가 항해하는 바다에서나, 콩고에서나, 여성들은 남성들이 경험하는 세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

말로우의 숙모는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 남성들의 세계에서 철저히 차단되어 진실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존재로 나타나 경멸의 대상이 된다. 그녀는 식민지 착취로 벌어들인 자본으로 아늑한 “응접실(drawing room)”의 “난롯가(fireside)”에서 “좋은 홍차(decent cup of tea)” (12)를 마시며, 편안한 삶을 누리는 빅토리아 시대의 전형적인 여성이다. 즉, 유럽 문명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여성으로 안정된 가정적 환경에서 품위를 유지하며 식민 사업을 모국의 영광으로 생각한다. 말로우가 깨닫게 되는 식민 사업의 진실<sup>18)</sup>은 숙모가 생각하는 식민 사업과 너무나 다른 것이다. 숙모는 그녀의 부를 유지시켜주는 식민 사업의 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There had been a lot of such rot let loose in print and talk just about that time, and the excellent woman, living right in the

---

17) Grace Isabel Colbron, “Joseph Conrad’s Women,” *Bookman* 38 (1914): p. 476 참조.

18)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아프리카 수장과 맺은 조약을 근거로 한 1884-85년의 베를린 회의에서 콩고의 식민 사업이 정당화되면서 유럽인들은 원주민으로부터 노동력과 고무와 상아를 징발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이윤이 극적으로 증가되었다. Sven Lindqvist, 김남섭 역, 『야만의 역사』 (서울: 한겨레신문사, 2003) pp. 46-60 참조.

rush of all that humbug, got carried off her feet. She talked about 'weaning those ignorant millions from their horrid ways,' till, upon my word, she made me quite uncomfortable. I ventured to hint that the Company was run for profit. (12)

제국주의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서 유럽인들은 식민지인들이 열등한 존재라는 것을 당연시 여기며, 그들을 개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시의 신문, 잡지, 언론매체 등은 식민지 사업에 뛰어드는 젊은이들의 위대성을 연재했다. 말로우의 숙모도 그 무렵 출판물이나 일상 대화 속에 나돌던 많은 헛소리를 그대로 믿으며, 그를 “빛을 전달하는 사도(emissary of light)” (12)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남성의 식민 사업을 원주민을 문명화시키는 위대한 사업이라고 믿으며, 잡지 혹은 신문에 게재된 식민주의 사업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

말로우의 숙모의 어리석음에 대한 불쾌감을 직접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그녀의 무지를 백인 여성 전체의 것으로 확대시키고자 하고 있다. 그가 여성들의 무지에 대해 동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의 열등함을 경멸하는 생각이 주된 바탕을 이루고 있다.

It's queer how out of touch with truth women are. They live in a world of their own, and there has never been anything like it, and never can be. It is too beautiful altogether, and if they were to set it up it would go to pieces before the first sunset. Some confounded fact we men have been living contentedly with ever since the day of creation would start up and knock the whole thing over. (12)

위의 인용에서 보여지듯이 말로우는 “여성들(they)” 과 “남성들(we)” 을 구분 지으며, 여성들을 진실을 바로 알지 못하는 무지한 존재들로 일반화시키고 있

다. 그들은 진실엔 관심이 없고, 오직 미학적인 면에만 관심을 갖는다. 게다가 여성들의 세계는 지나치게 이상적이며 아름다운 곳으로, 해가 떨어지기도 전에 허물어져 버리는 신기루와 같다. 그는 여성들이 현실감이 없고, 남성들의 식민지 사업에 극도로 무지하며, 허황된 이상만을 추구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남성들은 일상의 식민지 사업에 대한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여긴다. 말로우는 스트라우스(Nina Straus)의 지적처럼 진실이 오로지 남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여기며, 진실을 경험하는 남성의 세계와 환상에 묻혀 사는 여성의 세계를 확연히 구분 짓고 있다.<sup>19)</sup> 즉, 말로우는 여성들을 남성들과 같은 세계에 살 수 없는 열등한 존재로 인식한다.

말로우는 남성 우월적인 시각을 가지고 여성들과 구분되기를 원한다. 이러한 그의 여성관은 콩고 행 배의 선장직을 위해 숙모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의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자네들이 믿기 어렵겠지만 나, 찰리 말로우가 여성에게 도움을 요청했어. 그럴 수가 있을까 싶겠지!(Then—would you believe it?—I tried the woman. I, Charlie Marlow, set the woman to work—to get a job. Heavens!)” (8)라는 말에서 보듯, 숙모의 도움은 그에게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이었다. 더욱이 “숙모가 나의 기력을 북돋워주려고 노력했지만 그 노력은 전적으로 빛나가고 있었어(My dear aunt's endeavors to 'nurse up my strength' seemed altogether beside the mark.)” (73)라고 말하며, 그녀의 보살핌을 쓸데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린다.


말로우는 아프리카 콩고로 출발하기 전 일자리를 계약하기 위해 브뤼셀에 도착한다. 그가 찾아가게 된 사무실은 “깊은 그늘 속에 쌓인 좁고 인적이 드문 거리(a narrow and deserted street in deep shadow)” (10)에 있고, “불길한 분위기가 느껴지는(something ominous in the atmosphere)” (10) 곳이다.

---

19) 스트라우스는 *Heart of Darkness*에서 여성의 어리석음과 무지가 남성적 영웅주의를 돌보이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Nina Pelikan Straus, "The Exclusion of the Intended from secret Sharing," *Joseph Conrad* ed. Elaine Jordan (New York: St. Martin's, 1996) pp. 50-51.

그는 어두 침침한 회사의 대기실 “밖(outer)” (10)에서 뜨개질하는 여성들을 만나게 된다. 그들은 “실질적 사업(real work)” (10)이 이루어지고 있는 남성들의 영역 밖에서 회사보다는 가정에서나 어울림직한 뜨개질을 하고 있다. 기계적으로 손을 움직여서 하는 뜨개질은 인간미 없는 남성들의 사업을 비유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여성들이 고정된 자리에 앉아 반복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들은 “검은 실(black wool)” (10)로 뜨개질을 하면서 마치 “암흑 세계의 문(door of Darkness)” (11)을 지키고 있는 듯 보인다. 불길한 분위기, 검정 뜨개실, 암흑의 문은 모두 검은 색과 연관된 죽음과 악의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콘래드는 그래함(Cunningham Graham)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운명론적인 사회를 “직조기(knitting machine)” 에 비유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There is—let us say—a machine. It evolved itself (I am severely scientific.) out of a chaos of scraps of iron and behold!—it knits. I am horrified at the horrible work and stand appalled. I felt it ought to embroider—but it goes on knitting. You come and say: “this is all right; it’s only a question of the right kind of oil. Let us use this—for instance—celestial oil and the machine shall embroider a most beautiful design in purple and gold.”<sup>18</sup> Will it? Alas no. You cannot by any special lubrication make embroidery with a knitting machine. And the most withering thought is that the infamous thing has made itself; made itself without thought, without conscience, without foresight, without eyes, without heart. It is a tragic accident—and it has happened. . . . In virtue of that truth one and immortal which lurks in the force that made it spring into existence it is what it is—and it is indestructible. It

knits us in and it knits us out. It has knitted time, space, pain, death, corruption, despair and all the illusions—and nothing matters. I will admit however that to look at the remorseless process is sometimes amusing.<sup>20)</sup>

말로우는 뜨개질하는 두 여성의 역할을 직조기와 같은 비극적 역할로 인식한다. 직조기는 고통, 죽음, 부패, 절망 등을 냉혹하고, 무자비하게 만들어 내고 있다. 아름답게 수를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 없이 기계적으로 천을 짜는 모습은 무의미하고, 비인간적인 것으로 보인다. 두 여인은 직조기와도 같이 사람들을 암흑의 공간으로 보내기 위하여 검정색 실로 뜨개질을 하고 있다.

뜨개질하는 여성들은 운명의 실을 방직하고, 측량하고, 마름하면서 인간의 삶을 통제하고, 개개인의 삶의 결과를 결정하는 그리스·로마 신화의 운명의 세 여신을 연상시킨다.<sup>21)</sup> 신화 속 여신들처럼 그들은 “마치 시신을 덮게 될 검은 천(black wool as for a warm pall)” (11)을 만들기라도 하듯이, 암흑을 경험한 남성들이 돌아오면 덮게 될 죽음, 부패, 파멸의 천을 뜨개질하고 있다.

말로우는 두 여성이 제국주의 무역과 식민지 사업에 대해 모두 알고 있고, 마치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그들을 불길한 존재로 인식하며 불쾌해한다. “숙모가 그의 기분을 상하게 했듯이(. . . she [aunt] made me quite uncomfortable.)” (12), 이 여성들 역시 “그를 언짢게 한다(An eerie feeling came over me [him].)” (11). 더욱이 “고양이(cat)” (10)를 무릎에 데리고 있고, 한쪽 뺨에 “사마귀(wart)” (11)가 있는 나이든 여인은 그에게 마치 사악한 마녀를 연상케 하여 불쾌감을 주고 있다.<sup>22)</sup>

---

20) Joseph Conrad, *Joseph Conrad's Letters to R. B. Cunningham Graham* ed. C. T. Watts (Cambridge: Cambridge UP, 1969) p. 57.

21) The Fates (운명의 세 여신): Clotho- 생명의 실을 찾는 운명의 여신, Lachesis- 실의 길이를 정하는 여신, Atropos- 실을 끊는 여신. Rita A. Bergenholtz, "Conrad's *Heart of Darkness*," *Explicator* 53.2 (1995), Winter 1995 <<http://proquest.umi.com/pqdweb?TS=1051173434&RQT=309&CC=2&Dtp=1&Did=0000...>>.

22) 작품에서는 고양이와 같은 동물적 이미지가 종종 나타나는데, 맨델의 지적처럼 고양이는

말로우의 불쾌감은 뜨개질하는 여성들의 “무관심한 표정에서 느껴지는 평온함(indifferent placidity)” (11)과 “냉담하게 던지는 시선(unconcerned old eyes)” (11)에서 비롯된 것이다. 두 여성들은 말로우의 담론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단지 눈짓만을 보낼 뿐이다. 말로우는 이 여성들과 대화하지 않고, 그들을 침묵하게 하여 회사가 꾸미는 “모종의 음모(some conspiracy)” (10)를 숨기고 있다. 심지어 회사의 제국주의적인 공모의 책임을 미지의 곳으로 “사람들을 안내하고 있는 젊은 여성(. . . the younger one was walking back and forth introducing them.)” (10)과 “불가사의하고, 운명적으로 보이는 나이든 여성(She seemed uncanny and fateful.)” (11)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말로우는 이와 같이 뜨개질하는 여성들을 어둠과 악마적인 이미지로 표현한다. 게다가 여성들과 한 마디의 말도 주고받지 않으며 단지 그들의 시선에 불쾌한 감정을 드러낸다. 그는 여성들의 뜨개질을 불길한 것으로, 그들의 시선 역시 무의미한 것으로 여긴다.

한편 말로우는 프랑스 기선을 타고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주재소를 향해 가는 도중 가혹하게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는 원주민의 비참한 모습을 본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으로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는 회계 주임을 만나게 된다. 회계 주임은 “환상(vision)” 과 “기적(miracle)” (18)처럼 보이는 단정한 용모를 지니고 있다. 말로우는 회계 주임에게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게 차려입고, 멋을 낼 수 있는지 물어본다. 회계 주임은 말로우의 물음에 “전 주재소 근처에 사는 원주민 여성 중의 한 명에게 일을 가르쳤답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녀는 그 일을 아주 싫어했으니까요( 'I've been teaching one of the native women about the station. It was difficult. She had a distaste for the work.' )” (18)라고 대답한다.


여기서 회계 주임의 말을 통해서 원주민 여성의 존재가 드러난다. 이 여성

---

작품에서 아주 교묘하게 사용되어 폭력, 죽음, 그리고 도덕적으로 불쾌한 것을 암시하고 있다. Miriam B. Mandel, "Significant Patterns of Color and Animal Imagery in Conrad's *Heart of Darkness*," *Neophilologus* 73.2 (1989): p. 313.

은 회계 주임을 위해 세탁 일을 해 주는 원주민 여성들 중의 한 명에 불과하다. 그녀가 흑사당하는 모습은 회계 주임이 입고 있는 셔츠의 칼라, 커프스 등 그의 단정한 외모를 통해서 연상된다. “말로우가 본 회계 주임은 풀을 먹여 높이 세운 칼라, 하얀 커프스, 가벼운 천으로 만든 저고리, 눈처럼 하얀 바지를 입고, 깨끗한 넥타이를 하고, 광택을 칠한 구두를 신고 있다(I [Marlow] saw a high starched collar, white cuffs, a light alpaca jacket, snowy trousers, a clean necktie, and varnished boots.)” (18). 회계 주임은 원주민 여성에게 세탁 일을 시킴으로써 그의 외모를 항상 깔끔하게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식민지 문명화 사업을 담당해야 할 회계 주임은 식민지 여성에게 어떤 문명의 지식을 전달해주는 대신 세탁 일을 강요하고 있다.

말로우는 세탁 일을 싫어하는 원주민 여성의 고통을 이해하지 않는다. 대신 회계 주임의 단정한 외모가 그의 확고한 성품을 보여준다고 믿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I respected the fellow. Yes; I respected his collars, his vast cuffs, his brushed hair. His appearance was certainly that of a hairdresser's dummy; but in the great demoralization of the land he kept up his appearance. That's backbone. His starched collars and got-up shirt-fronts were achievements of character. (18)

위 장면에서 보여 지듯이 말로우는 제국주의적 지배의 힘을 행사하며 노동력 착취를 하고 있는 회계 주임을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단정한 모습을 칭찬한다. 말로우는 회계 주임의 편에서 세탁부 여성의 노동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식민지에서 행해지는 남성의 가부장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지배를 숨기고 있다.

세탁부 여성은 식민화와 긴밀히 연결되는 가부장제 억압으로 인해 육체적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여성의 노동력 착취는 비가시적으로 이루어진다. 작품



에서도 세탁부 여성의 구체적인 노동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회계 주임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성취하고 있다(Thus this man [chief accountant] had verily accomplished something.)” (18)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세탁부 여성의 위치는 가사 노동, 가난, 희생으로 재현되는 제 3세계 여성들의 비참한 현실을 상기시킨다. 백인 여성인 숙모와 인텐디드(Intended)가 안락한 응접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 모습은 식민지에서 갖은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는 원주민 여성과 또 다른 모습이다. 세탁부 여성은 노새처럼 일하는 존재로, 당시 노예화 된 원주민 여성들의 삶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식민사회에서 원주민 여성은 성차별과 인종차별이라는 이중적 억압에 희생당하는 위치에서 인간 주체로 인식될 수 없었다.

커츠를 만나러 가면서 잠시 머물게 된 주재소에서 말로우는 그 곳에 걸려 있는 유화 스케치를 보게 된다. 그것은 커츠가 주재소에서 머물며 장차 근무하게 될 거래소까지 타고 갈 배를 기다리는 동안 그린 그림이다. 그런데 이 그림은 커츠가 제국주의 사업으로 타락한 인간이 되기 전에는 예술적 자질을 갖고 있는 “화가(painter)” 혹은 “만능의 재주꾼(universal genius)” (73)이었다는 사실을 암시해준다. “커츠의 재산이 넉넉하지 않았다(He [Kurtz] wasn't rich enough or something.)” (77)는 사실로 추측해보건대 그가 예술가로서의 자질을 버리고 콩고로 가게 된 이유는 가난 때문이었을 것이다.

Then I [Marlow] noticed a small sketch in oils, on a panel, representing a woman, draped and blindfolded, carrying a lighted torch. The background was sombre—almost black. The movement of the woman was stately, and the effect of the torchlight on the face was sinister. (25)

커츠가 그린 그림은 아주 어두운 배경 속에 눈이 가려진 한 여인이 횃불을 들고 있는 그림이다.<sup>23)</sup> 그림의 배경은 어둡다 못해 거의 깜깜하며, 여인의 얼굴에서 불길함이 느껴진다. 그림 속 여성은 마치 빛의 사자로서 문명화 사업을 담당하는 것처럼 불타는 횃불을 들고 있다. 그러나 그림에 표현된 어둠과 불길한 느낌은 그림을 단순히 정의(justice)를 상징하는 문명화 사업으로만 볼 수 없게 한다. 그것은 왜곡된 이상을 가지고 어둠을 따라 가다가 결국 타락하게 된 커츠의 어둠을 나타낸다.<sup>24)</sup>

말로우의 눈이 가려진 이 여성을 실질적인 식민지 지식을 알지 못하며, 횃불을 들고 있지만 어느 곳에 있는지, 어느 곳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존재로 보고 있다. 기어리(Edward Geary)가 설명하고 있듯이 그림 속 여성은 문명의 고귀한 가치를 구체화시키는 상징적인 여성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성의 이름으로 문명화의 가치를 내걸었지만, 문명화 사업은 그녀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여성은 그림 속 영역에 고정되어 활동 영역이 극히 제한된다. 이처럼 그림 속 여성은 문명의 고결한 이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식민지 사업과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진다.<sup>25)</sup>

이에 대해 섉스톤(Mark Sexton)은 진실을 보지 못하는 그림 속 여성이 인텐디드를 상징하는 것이며, 삶의 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그녀의 어리석음이 말로우의 경멸을 끌어내고 있다<sup>26)</sup>고 주장한다. 그림 속 여성은 인텐디드와 같이 진실을 알지 못하는 암흑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커츠에게 횃불을 나르고

---

23) *Heart of Darkness*에서는 그림 속 여인이 백인 여성인지 흑인 여성인지를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나델하프트는 어둠을 배경으로 묘사된 여인이 흑인 여성에 더 어울린다고 설명한다. Ruth L. Nadelhaft, *Joseph Conrad: A Feminist Reading* (Hemel Hempstead: Harvester Wheatsheaf, 1991) p. 47.

24) David Galef, "On the Margin: The Peripheral Characters in Conrad's *Heart of Darkness*," *Journal of Modern Literature* 17.1 (1990): p. 123.

25) Edward A. Geary, "An Ashy Halo: Women as Symbol in *Heart of Darkness*," *Studies in Short Fiction* 13 (1976): p. 501.

26) Mark S. Sexton, "Kurtz's Sketch in Oils: Its Significance to *Heart of Darkness*," *Studies in Short Fiction* 24.2 (1987): p. 390.

있는 무지한 여성을 의미한다. 결국 이 여성은 정신적 암흑 속에 묻혀져 버려 그림 속 캄캄한 어둠의 공간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요컨대 *Heart of Darkness*에서 비중 있게 논의된 것은 말로우와 커츠의 남성적인 경험이지 여성 인물들의 존재가 아니다. 맥킨타이어(Gabrielle McIntire)가 설명하는 것처럼 말로우와 커츠는 “방랑자(wanderer)” (5)로서 아프리카 이곳 저곳을 이동하고 있는 반면에 여성들은 집(혹은 고국)에 머물러 있는 지리, 문화, 사상적으로 정체된 무기력한 존재들이다.<sup>27)</sup> 아프리카 경험은 남성들만의 영역이며, 여성들은 유럽의 평온함 속에 묻혀 남성들의 위대한 경험을 결코 알 수 없는 고정된 상태에 있다. 남성들이 “유창한 언어(power of eloquence)” (51)를 통하여 그들의 권위를 세우고 우월감을 발휘하고 있다면, 여성들은 말없는 존재이거나 언어로 인정받지 못하는 소리를 낸다. 커츠의 원주민 정부는 “말을 하지 못하는 고통(dumb pain)” (62)을 지니고 있으며, 인간의 말을 전혀 닮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낸다. 뜨개질하는 여성, 설탕부 여성은 작품 속에서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 오직 인텐디드와 숙모만이 말로우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인물들이다. 그들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성들에게 말을 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진리는 오직 남성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임을 재확인하기 위해서이다.<sup>28)</sup> 말로우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거짓되고 이상적인 말을 하게 함으로써, 여성들이 진리를 경험할 수 없는 무지한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다. 인텐디드와 숙모가 하는 말은 그들의 생각을 의미 있게 표현하는 언어가 아니라 말로우의 우월성을 주장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말로우가 앞서 “여성들의 세계는 아름답다(It is too beautiful altogether.)” (12)라고 말하였지만, 그 속뜻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여성들에 대한 단순한 빈정거림과 무시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그는 여성들

---

27) Gabrielle McIntire, “The Women Do Not Travel: Gender, Difference, and Incommensurability in Conrad’s *Heart of Darkness*,” *Modern Fiction Studies* 48.2 (2002): p. 270.

28) Smith, p. 189.

의 세계를 아름다움과 거리가 먼 무지와 암흑의 세계로 여기고, 여성들을 전체적으로 어둡고 음울하게 묘사한다. 여성들은 어둠의 세계에서 죽음, 악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로 보여지고, 그림자와 어두운 존재로 나타나 불길한 인상을 준다. 말로우는 여성들을 개별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다. 단지 어두운 색깔로써 그의 눈에 비친 여성들의 이미지만을 나타낼 뿐이다. 여성들은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루는 “너무나 어두운(too dark)” (79) 세계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표현된다.



### III. 타자성의 해체

제국주의로 대표되는 서구의 문화와 사상은 타자들을 배제함으로써 우월적 정체성의 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었다. 데리다(Jacques Derrida)는 주체/타자, 서양/동양, 문명/야만, 백인/흑인, 남성/여성 등의 이분법적 위계구조의 해체를 주장하였다.<sup>1)</sup> 그는 이원적 대립구조에서 대립항의 한 측면은 근원적인 것으로 중요시하고, 다른 측면은 열등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소외시키는 유럽 중심적 사고방식의 허구성을 비판한다. 그의 해체이론은 타자를 부당하게 억압하고 배제시키는 것을 합리화했던 지배 이데올로기의 독선과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나아가 은폐된 지배체제의 억압구조를 비판하고, 인종차별·성적 불평등의 경계선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타자성 연구에 유용하다.

해체의 개념을 *Heart of Darkness*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말로우의 타자성에 대한 의식변화이다. 말로우의 의식변화는 타자성을 구성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그의 감정, 인식, 표현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작가가 작품을 통해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현실 비판의식은 타자성에 대한 말로우의 변화된 의식에서 드러난다. 따라서 본 장은 작품에 등장하는 타자성을 해체하여 작가의 타자성 비판의 영역에 포함된 타자적 존재들과 비판의 영역에서 제외된 타자적 존재들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제외된 타자적 존재들 즉 여성들이 작품 전개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 A. 말로우의 의식변화

---

1) 이봉지, "구조주의, 후기 구조주의, 그리고 언어의 문제," 『현대 문학비평이론의 전망』 이명섭 외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4) pp. 127-32 참조.

아프리카로 가기 전 말로우는 “아무도 차지하지 않은 영역(many blank spaces)” (8)을 탐색하고, 정복하고자 하는 제국주의적 식민 사업이 당연한 것이라는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다. “암흑의 땅(place of darkness)” (8) 아프리카에 문명, 교역, 종교를 전해주어야 하는 문명화 사업은 그 당시 유포된 당연하고도 위대한 “제국의 의무(imperial duty)”<sup>2)</sup>였기 때문이다. 제국주의자들은 문명화의 사명을 “고귀한 사업(noble cause)” (9), 혹은 “위대한 대의명분의 진행(great cause of these high and just proceedings)” (16)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사명의 이면에는 식민지를 착취하여 더 많은 부를 획득하려는 제국주의적 위선이 숨겨져 있다.

말로우는 브뤼셀 사무실에 걸려있는 커다란 지도를 본다. 그는 지도에 영국 식민지를 가리키는 붉은 색의 면적이 넓은 것을 보며 “언제 보아도 흐뭇하다(good to see at any time)” (10)고 말하며, 제국주의 사업에 긍정적인 면모를 보인다. 하지만 콩고 내부로 들어감에 따라 유럽인들의 문명화 사업이 아프리카의 개발과 원주민을 교화시키는 것과 전혀 관계없는 무의미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말로우는 프랑스 군함이 움막 한 채 없는 숲을 포격하는 모습을 본다. 하지만 숲은 아무런 변화조차 없다. 아무 필요도 없이 총을 쏘고 있는 유럽인들의 기만적인 행동은 그에게 “광기(insanity)”와 “익살감(drollery)” (14)만을 느끼게 할 뿐이다.

더구나 말로우는 “풀밭에 나뒹굴고 있는 보일러(a boiler wallowing in the grass),” “바퀴가 빠진 채 뒤집혀 있는 트럭(an undersized railway truck lying there on its back with its wheels),” “부식되어 가는 기계(decaying machinery),” “한 무더기의 녹슨 레일(a stack of rusty rails)” (16) 등을 보

---

2) 러스킨은 모든 유용한 황무지를 발견하여, 영국의 힘을 식민지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제국의 의무라고 밝히고 있다. John Ruskin, "The Imperial Duty,"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7th ed., vol. 2 eds. M. H. Abrams et al. (New York: Norton, 2000) pp. 2019-20.

며, 문명화의 도구들이 식민지에서 아무 소용이 없음을 느낀다. 유럽인들이 철로를 건설하지 않고, 원주민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해 폭약만 터뜨리고 있는 모습이나 백인들이 들여 온 “배수 파이프(drainage-pipes)” (17)가 깨진 채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광경은 식민지 개척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제국주의 이념의 모순성을 드러내준다.

유럽이 식민지에 보내는 것은 그 곳에 전혀 필요 없는 기계, 싸구려 면직물, 구슬, 낫쇠 철사 따위의 공산품들이다. 반면 식민지에서 유럽인들이 착취하는 것은 물질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아이다. 상아는 개인, 식민지 회사, 그리고 제국주의 열강들이 모두 눈독을 들이는 값비싼 자원이다. 제국과 식민지의 무역 관계는 가치 없는 것과 가치 있는 것 사이의 불합리한 교역 활동이다.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에게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원주민의 배고픔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강요된 무역이다. 말로우는 상아수집에 혈안이 된 제국주의자들을 “썩은 울타리 속에서 마술에 걸려 신앙을 상실한 순례자 (faithless pilgrims bewitched inside a rotten fence)” (23)의 모습으로, 그들의 탐욕을 “시체에서 풍기는 악취(whiff from some corpse)” (23)처럼 더러운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말로우는 상아 수집을 위해 원주민의 고통을 냉혹하게 외면하는 회계 주임과 벽돌을 만들기 위해 아프리카에 파견되었지만 벽돌 하나 만들지 않는 벽돌공(brick-maker)을 만나게 된다. 회계 주임은 원주민 환자의 신음 소리를 주의력을 산만하게 하는 소음 정도로 여기며, 병든 원주민을 돌봐주지 않는다. 그는 장부 작성에 방해가 되는 “원주민을 죽도록 미워한다(. . . hate them to the death.)” (19). 더욱이 벽돌공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높은 자리로 승진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데 급급하고 있다. 말로우는 그를 “종이로 만든 메피스토펠레스(papier-mâché Mephistopheles)” (26)라고 생각하며, “흐느적거리는 오물을 제외하고 내면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 . would find nothing inside but a little loose dirt, maybe.)” (26) 속 빈 인간으로 여긴다.

말로우는 이와 같이 “무모하고, 탐욕스럽고, 잔인한(It was reckless without hardihood, greedy without audacity, and cruel without courage.)” (31) 제국 주의자들의 비인간성을 실감하게 된다. 지배인(general manager)은 학식과 덕 망도 없고, 주재소의 질서를 유지할 능력조차 없는 인물이다. 그는 열병을 이겨내는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임기를 3년씩이나 채울 수 있었다. 지배인은 커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말로우는 기선을 난파시키고, 그것을 수리할 대 잘못도 구해주지 않는다. 말로우는 벽돌공과 마찬가지로 “속에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은(Perhaps there was nothing within him.)” (22) 어리석은 지배인을 “재잘거릴 줄이나 아는 백치 녀석(chattering idiot)” (23)이라고 말하며 비웃고 있다.

식민지를 경영하는 사람들을 하나 둘 씩 만나감에 따라 말로우는 커츠의 존재에 깊은 관심을 갖고, 그와 만날 날을 고대한다. “커츠는 연민, 과학, 진보, 그리고 그 밖의 여러 가지 것들을 전파하는 사자(He [Kurtz] is an emissary of pity, and science, and progress, and devil knows what else.)” (25)로서, 문명화 사업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 아프리카 콩고로 파견된 인물이다. 그는 능률적으로 회사를 위해 봉사하며 회사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말로우는 주재소에서 만나게 된 러시아 청년의 말을 통해 커츠가 원주민에게 “천둥과 번개(thunder and lightning)” (57)처럼 무서운 존재이며, “아프리카 대륙에 사는 악마들 중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He had taken a high seat amongst the devils of the land.)” (50) 있음을 알게 된다. 커츠는 이러한 지위를 남용하여 “불건전한 방법(unsound method)” (69)으로 상아를 수집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물질적 탐욕과 정신적 타락으로 자제력을 상실하여 원주민을 비참하게 살해하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끔찍한 의식(unspeakable rites)” (51)을 거행하기까지 한다.

커츠의 이와 같은 타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국제야만풍습억제협회(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uppression of Savage Customs)” (50)에 보내



는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유럽인들에게 아프리카인들에 대한 인도주의를 호소하는 글로 시작하여 “모든 야만인들을 말살하라!(Exterminate all the brutes!)” (51)는 끔찍한 문구로 끝나고 있다. 이것은 문명화 사업이라는 이념 하에 숨겨진 제국주의자의 이중성과 잔혹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It gave me the notion of an exotic Immensity ruled by an august Benevolence. It made me tingle with enthusiasm. This was the unbounded power of eloquence—of words—of burning noble words. There were no practical hints to interrupt the magic current of phrases, unless a kind of note at the foot of the last page, scrawled evidently much later, in an unsteady hand, may be regarded as the exposition of a method. It was very simple, and at the end of that moving appeal to every altruistic sentiment it blazed at you, luminous and terrifying, like a flash of lightning in a serene sky: “Exterminate all the brutes!” (51)

유럽인들에게 감동적으로 야만인 말살을 호소하고 있는 이 보고서는 실제로는 “발전이라는 쓰레기통(dust-bin of progress)” (51)에 있는 “죽은 고양이와 같이 썩은 문명(all dead cats of civilization)” (51)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 나타나는 “커츠의 담론 능력(his ability to talk)” (48)은 “폐뿔을 수 없는 암흑의 심연으로부터 나오는 기만적인 흐름(the deceitful flow from the heart of an impenetrable darkness)” (48)과 같다. 다시 말해, 그의 달변은 스스로를 파괴시킴과 동시에 이념을 부패시키는 거짓된 것이다.

모든 야만인들을 말살하라는 커츠의 생각은 당시 사회적 통념인 제국주의 이념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실제 유럽인들은 기술과 자원이 모자라 16세기부터 학살이나 강탈을 통해서 부를 축적해왔으며, 그들의 무력화 과정을 끊임 없이 정당화하였다.

All of the subjugated peoples had it in common that they were considered to be naturally subservient to a superior, advanced, developed, and morally mature Europe, whose role in the non-European world was to rule, instruct, legislate, develop, and at the proper times, to discipline, was against, and occasionally exterminate non-Europeans.<sup>3)</sup>

위의 인용에서 사이드(Edward Said)가 지적하듯이 당시의 유럽인들은 힘이 바로 법이라고 생각하였고, 적자생존의 자연법칙이 인간사회에도 적용이 되어 우등 인종이 열등 인종을 힘으로 축출하거나 전멸시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유럽인들의 이러한 지배적 사고는 제국주의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으며, 지배문화의 우월적 가치를 피지배 민족들로 하여금 무의식적으로 인정하게 하여 정복자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

커츠는 원주민 위에 군림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프리카를 착취하고 그들을 억압하였다. 하지만 죽음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악행에 대해 “공포여! 공포!(The horror! The horror!)” (71)라는 말을 하며 절망과 환멸의 감정을 드러낸다. 어둠을 밝혀주기 위한 그의 문명화 사업이 사실상 “공허한 속임수(hollow sham)”<sup>4)</sup>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커츠도 아프리카의 심연에서 속이 텅 비어버린 인간이 되었다(He [Kurtz] was hollow at the core.)” (59). 하지만 유럽 문명의 탐욕과 만행을 보여주는 제국주의자들과 달리 커츠는 과거의 죄악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태도를 보여준다.

말로우의 커츠의 마지막 절규를 듣고 그것이 “그의 영혼이 겪은 모험에 대한 판결(a judgment upon the adventures of his [Kurtz’s] soul on this

---

3) Edward Said, “Yeats and Decolonization,” *Nationalism, Colonialism and Literature* eds. Terry Eagleton, Fredric Jameson, and Edward Said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1990) p. 72.

4) Lee M. Whitehead, “The Active Voice and the Passive Eye: *Heart of Darkness* and Nietzsche’s *The Birth of Tragedy*,” *Conradiana* 7.2 (1975): p. 127.

earth)" (71)이며, "성실한 절규(final burst of sincerity)" (68)라고 인정한다. 그 동안의 죄악에 대해 자각을 하는 커츠를 "주목할 만한 인물(remarkable man)" (72)이라고 부르며, 그의 외침을 "도덕적인 승리(moral victory)"<sup>5)</sup>(72)로 받아들인다. 다시 말하면, 말로우는 스스로 "선택한 악몽(choice of nightmares)"<sup>6)</sup>(69)을 통해 커츠에게서 인간적인 약점을 발견하고, 연민을 느끼게 된다.

여기서 말로우는 제국주의의 병폐를 지적하면서도 한편으론 제국주의를 대표하는 커츠를 이해하고, 옹호하는 모순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말로우는 이중성은 그가 제국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국주의 이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한계로 보여진다.

말로우는 커츠를 만나러 가기까지의 아프리카 경험을 통해 유럽의 식민 사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질 수 있었고, 콩고에서의 유럽인들의 악행과 도덕적 타락의 원인이 된 인간 내면의 악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었다. 콘래드는 제국주의 이념의 허상을 보고, 식민지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제국주의자 말로우는 통해 근본적으로 제국주의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커츠를 만나러 가는 여행길에서 제국주의자들이 물질적 탐욕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말로우는 광활한 아프리카의 생명력을 느끼

5) 맥클로클랜은 커츠의 내적인 갈등의 외침을 인간의 "높은 잠재력(upward potential)"으로 여기며, 결국 커츠가 도덕적으로 승리했다고 설명한다. Juliet McLauchlan, "The Something Human in Heart of Darkness," *Conradiana* 9 (1977): pp. 115-25 참조.

6) 바네트는 *Heart of Darkness*가 남성집단의 독자들만을 염두에 둔 성별화된 서술 구성(gendered organization of narration)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말로우는 선택한 악몽이 가장 남성다운 선택이며, 남성적 연대의식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말로우는 독자들로부터 그의 악몽의 선택에 동의하도록 만들고 있다. Clive Barnett, "'A Choice of Nightmares': narration and desire in Heart of Darkness," *Gender, Place and Culture* 3.3 (1996): pp. 277-91; 말로우는 영국성(Englishness)은 커츠가 받아들이고 있는 제국주의적 영국의 가치를 인정하고, 악몽을 선택하게 된 동기가 된다. 그러나 말로우는 영국성이 어떻게 커츠를 타락시켰는지를 알지 못한다. 이것은 말로우는 주관적 인식(영국적 가치의 타당함)과 객관적 상황(영국적 가치의 위선)이 어긋남을 보여주는 구조적인 아이러니이다. Perciles Lewis, "'His Sympathies Were in the Right Place': Heart of Darkness and the Discourse of National Character," *Nineteenth-Century Literature* 53.2 (1998), 1 Sep. 1998 <[http://0-infotrac.galegroup.com.unistar.uni.edu/itw/infomark/530/276/34699134w7/purl=rc1\\_EAL...](http://0-infotrac.galegroup.com.unistar.uni.edu/itw/infomark/530/276/34699134w7/purl=rc1_EAL...)>.

게 된다. 그는 처음에 아프리카를 타자적 공간으로 인식하여 유럽의 지배를 정당화하려고 하였지만, 점차 유럽의 지배에 보복할 수 있는 아프리카의 거대한 힘을 깨닫게 된다.

그 도전과 저항의 힘은 아프리카 밀림의 정적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밀림은 항상 무언가를 감추고,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 말로우를 위협하는데, 정적 속에 숨겨진 것은 바로 제국주의자들을 파멸시키는 보복의 힘이다.

And outside, the silent wilderness surrounding this cleared speck on the earth struck me as something great and invincible, like evil or truth, waiting patiently for the passing away of this fantastic invasion. (23)

위의 인용에서처럼 말로우는 밀림의 정적이 중요하고, 정복될 수 없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느낀다. 아프리카는 말없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강탈이 스스로 사라지길 끈질기게 기다리고 있다. 정적은 아프리카의 정지 상태 혹은 죽음으로 인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생명력의 힘으로 드러난다. “대지의 침묵은 신비로움, 웅대함, 그것이 감추고 있는 생명의 경이로운 실체를 우리의 가슴에 절실히 와 닿게 하고 있다(. . . the silence of the land went home to one’s very heart—its mystery, its greatness, the amazing reality of its concealed life.)” (26). 문명인에게는 지배하고 정복해야 하는 물질적 대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 밀림은 수많은 강탈과 지배 속에서도 그것의 생명과 신비로움을 한결같이 잃지 않고 있다. 생명력이 있어 보이는 밀림의 모습에 말로우는 그 정적을 궁금해한다.

I wondered whether the stillness on the face of the immensity

looking at us two were meant as an appeal or as a menace. What were we who had strayed in here? Could we handle that dumb thing, or would it handle us? I felt how big, how confoundedly big, was that thing that couldn't talk, and perhaps was deaf as well. (27)

밀림의 거대한 세계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에 대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는다. 밀림은 단지 자신을 파괴하는 제국주의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정적으로 위협을 주고 있을 뿐이다. 말로우는 그 세계가 거대하고 엄청난 것임을 느끼며, 밀림의 세계가 제국주의자들을 지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즉, 그들이 침략했던 밀림에 의해 역으로 지배를 받을지도 모르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때로는 침묵이 길고 수다스러운 말보다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하듯이, 아프리카의 정적은 말하지 않는 깊이와 무게를 감추고 있다. 마치 원주민 여성이 “헤아릴 수 없는 목적(*inscrutable purpose*)” (62)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프리카의 “엄청난 정적(*great silence*)” (34)은 “헤아릴 수 없는 의도(*inscrutable intention*)” (34)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바로 “복수의 형태(*vengeful aspect*)” (34)를 띠고 드러나게 될 공격의 힘이다.

There was no sign on the face of nature of this amazing tale that was not so much told as suggested to me in desolate exclamations, completed by shrugs, in interrupted phrases, in hints ending in deep sighs. The woods were unmoved, like a mask—heavy, like the closed door of a prison—they looked with their air of hidden knowledge, of patient expectation, of unapproachable silence. (57)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밀림의 모습은 변화도 하지 않고, 감옥의 문처럼 단혀져

있어 열리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접근조차 허용하지 않는다. 한결같이 침묵의 외양을 갖추고, 복수의 날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는 밀림의 정적은 말로우의 생각을 계속하여 괴롭힌다. 말로우를 두렵게 만드는 정적은 마치 “모든 보잘것없는 인간들의 존재를 싹 쓸어버릴(. . . sweep every little man of us out of his little existence.)” (30) 듯하다. 그는 실제로 아프리카 밀림의 원시적인 정적이 자신의 눈과 귀를 멀게 할 만큼 위협적임을 느끼게 된다.

The living trees, lashed together by the creepers and every living bush of the undergrowth, might have been changed into stone, even to the slenderest twig, to the lightest leaf. It was not sleep—it seemed unnatural, like a state of trance. Not the faintest sound of any kind could be heard. You looked on amazed, and began to suspect yourself of being deaf—then the night came suddenly, and struck you blind as well. About three in the morning some large fish leaped, and the loud splash made me jump as though a gun had been fired. When the sun rose there was a white fog, very warm and clammy, and more blinding than the night. It did not shift or drive; it was just there, standing all round you like something solid. (40)

말로우는 희미한 어떤 소리도 듣지 못하자 귀를 먹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그저 놀란 눈으로 밀림을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밤이 되어 어둠으로 인해 아무 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물고기가 뛰어오르는 소리를 듣고는 마치 대포 소리를 들은 것처럼 깜짝 놀란다. 이것은 그가 어둠 때문에 시야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그의 청각이 더욱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았을 때의 두려움, 들리지 않을 때의 적막감이 더 큰 공포감을 만드는 것이다. 해가 뜨고, 날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짙은 안개는

은 시야를 하얗게 만들며 앞을 볼 수 없게 만든다. 인간의 눈과 귀가 모두 자연의 힘에 의해 무력해지고 있다. 밀림은 자연의 거대한 힘을 보여주면서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느끼게 한다.

말로우는 밀림의 위협을 몸소 느끼며, 커츠의 죽음을 “밀림이 일찍이 그의 정체를 알아내서, 어이없는 침략에 대해 끔찍한 보복을 한(But the wilderness had found him [Kurtz] out early, and taken on him a terrible vengeance for the fantastic invasion.)” (59) 결과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커츠는 자신이 침략하고, 지배했던 밀림에 의해 오히려 파멸된 것이다.

밀림은 커츠와 같이 탐욕적이고 위선적인 제국주의자들에게 보복을 하고 있지만, 힘없고 불쌍한 원주민에게는 안식처가 되어준다. 밀림은 제국주의자들에게 “구타당하고(beatens),”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 . screeching most horribly.)” 힘없이 무너지는 “원주민을 소리 없이 넓은 가슴으로 포용하고 있다(. . . the wilderness without a sound took him into its bosom again.)” (24). 밀림은 연약하고 가엾은 원주민을 넓은 가슴으로 끌어안는 자애로움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은 밀림이 커츠를 가슴에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모습과 대조적인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말로우는 커츠와의 만남을 통해 인간 내면의 어둠을 인식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 아프리카에서 브뤼셀로 돌아온 말로우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그는 “회칠한 무덤(whited sepulchre)” (9)같은 위선적인 문명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브뤼셀 사람들을 보며 쓴웃음을 짓는다. 그들은 의미 있는 삶의 경험을 결코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말로우에게 그들은 일상 생활 속에서 “말도 되지 않는 허식(irritating pretence)” (72)을 부리며 바보같이 살아가는 “침입자들(intruders)” (72)로 비취진다. 허세를 부리며 “서로의 돈을 훔치고, 맛없기로 이름난 음식을 삼키거나, 몸에 해로운 맥주를 마시거나, 바보 같은 하찮은 꿈을 꾸면서 거리를 나도는 사람들의 모습(. . . the sight of people hurrying through the streets to

filch a little money from each other, to devour their infamous cookery, to gulp their unwholesome beer, to dream their insignificant and silly dreams.)” (72)을 보며 말로우는 혐오감과 거부감을 느낀다.

반면 말로우는 원주민이 “해안에서 부서지는 파도만큼이나 자연스럽고 진실한(. . . that was as natural and true as the surf along their coast.)” (14) 자연의 세계에 살고 있음을 느낀다. 원주민은 미개하고, 사악한 존재가 아니라 “야성적 생명력(wild vitality)” 과 “강렬한 열정(intense energy)” (14)을 지닌 인간적인 모습으로 비춰진다. 그는 원주민이 물질 문명의 이기 속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인간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들은 “바르고 곧은 진실의 세계(world of straightforward facts)” (14)에 어울리는 생동력과 에너지를 가진 참다운 인간들이다. 또한 그들이 지닌 생명력은 말로우에게 “커다란 위안(great comfort)” (14)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가치로 보여진다.

생기 있고, 활기차게 보이는 것이 원주민의 외적인 모습이라면 원주민의 “내적 본성(innate strength)” (50)인 자제력은 인간이 지녀야 할 “참된 자질(true stuff)” 로써 그들의 “타고난 힘(inborn strength)” (37)을 보여준다.

You can't understand. How could you?—with solid pavement under your feet, surrounded by kind neighbours ready to cheer you or to fall on you, stepping delicately between the butcher and the policeman, in the holy terror of scandal and gallows and lunatic asylums—how can you imagine what particular region of the first ages a man's untrammelled feet may take him into by the way of solitude—utter solitude without a policeman—by the way of silence—utter silence, where no warning voice of a kind neighbour can be heard whispering of public opinion? These little things make all the great difference. When they are gone you must fall back upon your own innate strength, upon your



own capacity for faithfulness. (50)

문명은 경찰이나 이웃이라는 존재 속에서 인간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보호하는 역할을 해준다. 그러나 문명이라는 외적인 구속이 사라졌을 때 우리들은 자신의 타고난 힘과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에 의지해야 한다. 커츠는 아프리카에서 경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철저한 고독과 이웃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철저한 침묵의 상황에 빠져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한다. 아프리카라는 고립된 환경에서 모든 외부의 유혹에 굴복하고 탐욕스런 본능에 따라 행동하면서 “그의 영혼은 끝내 미치고 말았다(But his soul was mad.)” (68).

말로우는 커츠를 만나러 가는 출장소에 이르렀을 때 커츠의 자제력 상실을 상징하는 울타리에 둥근 덩어리로 장식된 기둥을 보게 된다.

These round knobs were not ornamental but symbolic . . . and there it was, black, dried, sunken, with closed eyelids—a head that seemed to sleep at the top of that pole, and, with the shrunken dry lips showing a narrow white line of the teeth, was smiling, too, smiling continuously at some endless and jocose dream of that eternal slumber. (58)

위의 인용에 나타나듯이 말로우는 목격하는 것은 기둥 위에 걸려있는 원주민의 머리로 그것은 실제 제국주의자들이 도덕과 윤리를 망각하여 포악한 행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커츠는 더 많은 상아수집을 위해 아프리카인들을 무자비하게 살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말로우는 “그 머리들이 커츠의 욕구를 충족 시킴에 있어서 자제력을 상실하고 있었고, 무언가 결핍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They only showed that Mr. Kurtz lacked restraint in the gratification of his various lusts, that there was something wanting in him.)” (58)고 생각한다. 원주민을 식인종이라 부르며 적대시했던 한 유럽인이 바로 그 식인풍

습에 참여하여 살인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죽어서 기둥 위에 매달린 원주민이 마치 커츠를 조롱하듯이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제국주의자들의 파멸을 예고하며, 커츠가 자신이 희생시킨 원주민 앞에서 희생물로 전락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커츠의 자제력 상실은 원주민의 자제력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자제력은 유럽 문명의 미덕 중에 하나이며, 인간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삶의 자질이다. 그러나 이 자제력을 유럽인에게서 찾아볼 수 없고, 증기선에 고용된 식인 원주민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말로우는 식인 풍습을 행하는 원주민이 극도의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백인들을 잡아먹지 않는 것에 놀라워한다. 그들은 백인들보다 수적으로 우세했고 충분히 백인들을 잡아먹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이상으로 참기 어려운 배고픔을 견디고 있다.

Sad, but true. And these chaps, too, had no earthly reason for any kind of scruple. Restraint! I would just as soon have expected restraint from a hyena prowling amongst the corpses of a battlefield. But there was the fact facing me—the fact dazzling, to be seen, like the foam on the depths of the sea, like a ripple on an unfathomable enigma, a mystery greater—when I thought of it—than the curious, inexplicable note of desperate grief in this savage clamour that had swept by us on the river-bank, behind the blind whiteness of the fog. (43)

말로우는 원주민을 마치 하이에나(hyena)와 같이 욕망에 따라 행동하는 동물적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자제력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에게 원주민의 자제력은 신비스럽게 보이기까지 한다. 이것은 자제력을 상실하여 원주민의 머리를 나무기둥 위에 걸어놓는 커츠의 악행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말로우는 야만적인 행동을 하는 문명인보다 마치 문명인만이 소유할 수 있는

자제력을 원주민이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충격을 받는다.

콘래드는 호킨스(Hunt Hawkins)가 주장하듯이 원주민에 대해 부정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적인 본성인 자제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으며, 원주민의 “타고난 본성(inborn strength)” (37)이 도덕성에 대한 하나의 희망을 제공해준다는 점을 강조한다.<sup>7)</sup> 자제력은 원주민에게도 살아가는 원칙과 기준이 되는 도덕적인 것이며, 인간을 인간답게 해 주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커츠는 비록 문명화된 유럽인이었지만 아프리카에서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여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가장 야만적인 인물로 변하게 되었다. 이것은 커츠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부패한 타락상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개하고 열등한 타자로 전락한 원주민은 어둠과 악의 상징으로써가 아니라 도덕적 희망으로 인간의 마음 속에 남아있는 내적인 자제력을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Heart of Darkness*에서 밀림의 정적은 생명력을 지니고 있고, 제국주의자들의 지배를 전복시킬 수 있는 위협적인 힘을 보여준다. 실체를 알 수 없는 “신비스러운 정적(mysterious stillness)” (34)은 말로우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고, 커츠의 “달변(eloquence)” (69)을 파괴시키는 침묵의 힘이다. 게다가 밀림은 힘없이 죽어 가는 원주민에게는 그들의 안식처 역할을 해준다. 착취와 수난의 억압적 상황에서 밀림의 정적은 커츠와 같은 제국주의자들에게는 그들의 침략적인 시도를 전복시켜 파멸로 몰아넣는 저항의 힘을 보여주고 있고, 억압과 지배에 무기력한 원주민에게는 넓은 가슴으로 포용하여 자애로움을 베푸는 사랑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원주민은 순수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제력이라는 내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외적·내적인 본성은 탐욕에 눈이 멀어 타락한 서구 문명인들에게서 찾아 볼 수 없는 인간적 가치이다. 콘래드가 인식한 원주민의 가치는 인간의 변하지 않는 긍정적 자질로, 순수한 타자에게는 희망

---

7) Hunt Hawkins, “The Issue of Racism in *Heart of Darkness*,” *Conradiana* 14.3 (1982): p. 168.

을, 사악한 주체에게는 파멸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는 유럽의 제국주의자들이 원주민보다 더욱 더 사악하고 야만적임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문화적 우월감의 모순과 악행을 폭로하고 있고, 타자화된 원주민이 자제력이라는 중요한 인간적 자질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배 이데올로기의 특권적 지위를 인식하고, 아프리카와 원주민을 열등하고 미개한 타자로서 무시했던 말로우가 아프리카 콩고 경험을 통해 서구 문명의 위선적 측면을 드러내고, 이분법적 사고의 허구성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말로우는 획일적이고, 고정적이었던 주체/타자라는 이분법적인 경계와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의문을 던지게 된다. 그에게 광활한 아프리카 자연은 외경심을 느끼기에 충분할 만큼 강한 생명력의 힘으로 비취지고, 극한의 상황에서 원주민이 엄청난 자제력을 발휘하는 모습은 자제력 상실로 죽음에 이른 커츠의 모습과 대비되면서 그로 하여금 경탄을 자아내게 하기 때문이다. 말로우는 아프리카라는 전혀 이질적 세계의 경험을 통해 타자로 전락시킨 존재들이 내포하는 강한 힘을 느끼고, 오히려 제국주의 이념의 부패와 허상에 빠져있는 유럽을 “무덤 같은 도시(sepulchral city)” (72)로 인식하며, 유럽인들을 혐오스러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는 서구 중심의 이분법적 경계를 무너뜨리며 타자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사고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즉, 획일적인 가치체계에서 벗어나 타자를 공존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고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 B. 타자성 인식과 한계

말로우는 아프리카의 정적과 원주민의 자제력의 힘을 인식하게 되고, 유럽 중심의 편협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타자들을 공존할 수 있는 주체로 바라보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들은 남성들의 경험과 언어를 공유할 수 없는 무

지하고 미미한 존재들로 억압이라는 타자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은 남성들의 경험과 언어를 공유할 수 없는 무지하고 미미한 존재들이다. 다시 말하면, 아프리카 경험 전 말로우가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과 아프리카에 가서 원주민 여성을 인식하는 태도는 남성 중심적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는 콩고 경험을 통해 아프리카와 원주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느끼며 제국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 그렇지만 아프리카에 가서도 여성을 열등하고 무지한 타자적 존재로 인식한다. 더욱이 원주민 여성을 아프리카의 이미지로 묘사하며 원시성, 야만성을 부각시킨다.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후 브뤼셀에서 인텐디드를 만났을 때도 역시 환상에 빠져있어 진실을 알지 못하는 여성의 어리석음을 강조한다. 문명화 사업이라는 이념 하에 아프리카에서 잔인하고 추악한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는 제국주의 실체가 말로우에게 충격적인 것으로 다가올 수 있었지만, 당시 유럽 내에서 일반화된 가부장제가 아프리카에서 전혀 새로운 자극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말로우는 아프리카 내륙 “숲의 어두운 그늘(dusk of the thicket)”에서 “불길한(something ominous)” (62) 느낌을 주며, 망령처럼 나타난 원주민 여성을 보게 된다. 그녀의 모습은 환영처럼 “온전하지 않는 모습(half-shaped)” (62)으로 보여진다. 또한 “기다란 그림자(long shadow),” “날쌔 그림자(swift shadows)” (62)와 같이 어둡고,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묘사된다. 맥킨타이어(Gabrielle McIntire)가 지적하고 있듯이 작품 속 여성들은 어둡고 캄캄한 배경에서 불가시성(invisibility)으로 고통을 겪는다. 그들은 “유령과 같은 존재,” “불완전한 존재”로 그려진다.<sup>8)</sup>

원주민 여성은 커츠의 그림 속 여성처럼 당당하면서도 뭔가 불길하고 어두운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다. 그녀는 세련된 유럽여성인 인텐디드와 달리 원시

8) Gabrielle McIntire, "The Women Do Not Travel: Gender, Difference, and Incommensurability in Conrad's *Heart of Darkness*," *Modern Fiction Studies* 48.2 (2002): p. 258.

성, 야만성, 동물성을 갖고 있는 “화려한 야성의 망령(wild and gorgeous apparition)” (61)으로 표현된다.

She was savage and superb, wild-eyed and magnificent; there was something ominous and stately in her deliberate progress. And in the hush that had fallen suddenly upon the whole sorrowful land, the immense wilderness, the colossal body of the fecund and mysterious life seemed to look at her, pensive, as though it had been looking at the image of its own tenebrous and passionate soul. (62)

원주민 여성은 어두운 “야만성 그 자체(the wilderness itself)” (62)의 아프리카를 상징한다. 그녀의 모습은 아프리카 땅의 야만성으로 의인화되고, 그녀의 슬픔은 아프리카의 슬픔으로 대변된다. 다산적이고 신비롭게 보이는 생명체는 그녀의 몸이면서 한편으론 아프리카 땅이다. 아프리카 땅은 여성과 마찬가지로 억압받는 타자의 공간이다. 과농(Frantz Fanon)은 식민지인들에게 가장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가치는 땅이며, 땅은 그들을 먹여주고, 길러주고, 무엇보다도 존엄성을 가져다 준다<sup>9)</sup>고 하였다. 하지만 제국주의자들에게 식민지는 생명과 직결된 살아있는 땅이 아니라 그들의 경제적 탐욕을 위해서 무너지고 손상되어야 하는 공간에 불과하다.

흔히 여성의 육체가 신세계의 영토나 재화로 비유됨으로써 여성을 지배하고자 하는 가부장적 사고방식과 식민지에 대한 정복욕이 공존하여 나타나게 된다. 말로우는 여성들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을 연결시키고 있는데, 여성과 아프리카는 모두 남성적 행동이 작용하는 비유적 장소가 된다. 가부장적 남성들이 정복하고 싶은 것과 제국의 모험가들이 탐구하고 싶은 것은 각각 순결

---

9) Frantz Fanon, *The Wretched of the Earth* Trans. Constance Farrington (New York: Grove, 1963) p. 44.

한 여성과 아프리카 땅이다.

토고브닉(Marianna Torgovnick)은 말로우가 “야성적인(wild),” “말을 못하는(dumb),” “헤아릴 수 없는(inscrutable),” “다산적이고 신비로운(fecund and mysterious),” “어둡고 열정적인(tenebrous and passionate)” (62)과 같은 어휘들로 원주민 여성을 잘못 묘사하며, 감정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sup>10)</sup>고 지적한다. 말로우는 위선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원주민 여성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며, 그것이 마치 원주민 여성의 진짜 속성인 듯 표현하고 있다. 게다가 그러한 감정적 어조로 원주민 여성을 어둡고 불길한 아프리카의 상징으로 표현하며 죽음과 연결시키고 있다. 아프리카는 죽음의 상징인 무덤으로, 숨겨진 악으로, 심오한 어둡으로 유혹하는 여성적인 공간이 된다. 말로우는 여성, 원시, 죽음을 동일하게 취급하며 여성들을 유혹적이며, 위협스러운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주민 여성은 뜨개질하는 여성들처럼 단지 몸짓과 눈짓으로만 의미를 표현한다. 말로우는 말을 하지 못하는 원주민 여성을 비인간적인 존재로 인식한다. 숲의 어두운 그늘 속으로 들어가면서 보낸 “그녀의 시선(her eyes)” (62)은 안전지대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퇴각하는 동물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킨다.<sup>11)</sup> 이처럼 말로우는 원주민 여성을 동물적인 존재로 전락시키고 있다.

우리가 “침묵하는(dumb)” (62) 원주민 여성을 생각해볼 때 말로우는 그녀에게 언어 능력을 부여하지 않고 단지 그녀의 시선과 표정만을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에게 여성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숙모와 인텐디드는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비록 말로우의 필요—선장직을 구하기 위해서 또는 인텐디드에게 커츠에 대한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에 의해서만 의미를 갖긴 하지만 백인 여성들은 말로우와

---

10) Marianna Torgovnick, *Gone Primitive: Savage Intellectuals, Modern Lives* (Chicago: U of Chicago P, 1990) pp. 155-56.

11) McIntire, p. 261.

의사 소통이 가능한 존재들이다. 이와는 달리 말로우는 커츠를 강의 상류로 데려올 때 원주민 여성이 하는 말을 그저 “무언가 외치고 있는(. . . shouted something.)” (68) 고향 소리 정도로 받아들인다. 그것은 “인간의 말을 전혀 닮지 않은 놀라운 소리(amazing words that resembled no sounds of human language)” (68)이다. 즉,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동물의 울부짖음과 같은 소리로 원주민 여성은 인간처럼 말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여 준다.

말로우는 인텐디드를 만나면서 “성실과 믿음으로 고통을 감내하는 그녀의 성숙한 능력을(She had a mature capacity for fidelity, for belief, for suffering.)” (76) 부각하듯이, 커츠의 정부인 흑인 여성의 “풍부하고 신비로운 몸(body of the fecund and mysterious)” (62)을 강조하고 있다.<sup>12)</sup> 기어리(Edward Geary)의 지적처럼 인텐디드는 순수하고, 정신적이며, 섹슈얼리티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인물로, 원주민 여성은 남성의 환상 속에 억제될 수 없는 성적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인물로 표현되고 있다.<sup>13)</sup>

백인에 의해서 흑인이 멸시되었듯이 육체도 제도적으로 무시되어 왔고, 백인과 흑인의 관계처럼 정신과 육체의 가치도 지배/피지배의 관계로 유지되어 왔다. 정신의 타자로 경멸과 금기의 대상이었던 육체는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서양의 사상사에서 무시되고 천대받았다.

말로우는 정신과 육체를 대비시켜 정신을 우위에 두는 것으로써 백인 여성과 흑인 여성의 차이를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그는 인텐디드의 대응으로 원주민 여성을 생각하고 있고, 인텐디드의 정신과 원주민 여성의 육체를 대조시킴으로써 몸을 실체가 아닌 인식의 도구로 여기고 있다. 더욱이 원주민 여성에게 언어 능력을 주지 않고, 그녀를 아프리카 땅의 모습으로 비유하면서 실

12) 인텐디드와 원주민 여성의 대조는 종교적 알레고리로 이루어져 있는 스펜서(Edmund Spenser)의 작품 *The Faerie Queene*에서 참종교, 진실, 순결, 겸손을 상징하는 백색의 이미지로 표현된 우나(Una)와 이교도를 상징하는 흑색의 사악한 이미지로 나타난 두엣사(Duessa)의 대립관계를 연상시킨다. Bruce Henricksen, "Heart of Darkness and the Gnostic Myth," *Mosaic* 11.4 (1978): p. 40 참조.

13) Edward A. Geary, "An Ashy Halo: Women as Symbol in *Heart of Darkness*," *Studies in Short Fiction* 13 (1976): p. 502.



체를 파악할 수 없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다. 백인 여성과 흑인 여성은 모두 타자화되고 있지만, 말로우와 다른 문화 속에 사는 흑인 여성은 더욱 잊혀지고 무시 받는 타자가 된다. 이처럼 말로우는 성과 인종의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흑인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종속시키며, 인텐디드와 원주민 여성을 대조시키고 있다.

말로우는 아프리카에서 브뤼셀로 돌아온 후 인텐디드를 만나게 된다. “그녀는 파리한 얼굴에 검은 옷을 입고, 마치 어둠 속에서 두둥실 떠서 그에게 다가오고 있는(She came forward, all in black, with a pale head, floating towards me [him] in the dusk.)” (75) 듯이 보였다.

말로우가 인텐디드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중요한 단어는 “환상(illusion)” (77)이다. 인텐디드에 대한 묘사는 텍스트의 끝 두 페이지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는 인텐디드를 포함한 여성들이 이야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Girl! What? Did I mention a girl? Oh, she is out of it—completely. They—the women, I mean—are out of it—should be out of it. We must help them to stay in that beautiful world of their own, lest ours gets worse. Oh, she had to be out of it. (49)

위의 인용은 말로우의 여성 차별적 시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다. 여성들은 남성들의 세계가 약화되지 않도록 그들만의 세계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또한 여성들은 남성들의 세계를 어지럽히고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배제된다.

말로우는 커츠가 가지고 있었던 편지와 사진을 돌려주기 위해 인텐디드의 집을 방문하게 된다. 방문의 목적은 그의 “호기심(curiosity)” (74)을 충족시키기 위함이지, 그녀의 슬픔을 위로하려는 것이 아니다. 말로우가 만난 “인텐디

드는 어떤 망설임도, 의심도, 주판도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듯이 보였다(She [Intended] seemed ready to listen without mental reservation, without suspicion, without a thought for herself.)” (74). 말로우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있는 숙모처럼 인텐디드 역시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오직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진리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다.

게다가 인텐디드는 숙모가 안정적 부를 누리듯, “높다란 응접실(lofty drawing room)” 이 있고, “기다란 창문(long windows),” “금빛 나는 가구(gilt furniture),” “대리석 벽난로(marble fireplace),” “그랜드 피아노(grand piano)” (75)로 장식된 집에서 부를 누리고 있는 여성이다. 콘래드는 인텐디드의 집을 상세히 묘사하면서 유럽의 부가 식민지 사업을 통해 잘 유지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제국주의 사업에 대한 그녀의 환상과 무지는 그 사업에 참여해 결국 공포라고 외치며 인생의 막을 내린 커츠를 존경하고, 훌륭한 인물로 극찬할 때 부각된다.

“You [Intended] knew him [Kurtz] best,” I [Marlow] repeated. And perhaps she did. But with every word spoken the room was growing darker, and only her forehead, smooth and white, remained illumined by the unextinguishable light of belief and love. (76)

위 인용에서 알 수 있듯 “커츠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를 사랑하게 된다(It was impossible not to—love him [Kurtz].)” (76)고 여기며 환상에 빠져있는 인텐디드를 보고, “말로우는 어안이 병병하여 말문이 막혀버린다(. . . silencing me [Marlow] into an appalled dumbness.)” (76). 그 순간 “방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 . the room was growing darker.)” (76), 그녀와 말

을 주고받을 때마다 “그 어둠은 더욱 깊어졌다(The darkness deepened.)”  
(77). 어두운 방에 대한 묘사를 통해 여성의 무지가 강조되고 있다.

She came forward, all in black, with a pale head, floating towards me in the dusk. She was in mourning. It was more than a year since his death, more than a year since the news came; she seemed as though she would remember and mourn forever. She took both my hands in hers and murmured, 'I had heard you were coming.' I noticed she was not very young—I mean not girlish. She had a mature capacity for fidelity, for belief, for suffering. The room seemed to have grown darker, as if all the sad light of the cloudy evening had taken refuge on her forehead. This fair hair, this pale visage, this pure brow, seemed surrounded by an ashy halo from which the dark eyes looked out at me. Their glance was guileless, profound, confident, and trustful. She carried her sorrowful head as though she were proud of that sorrow, as though she would say, I—I alone know how to mourn for him as he deserves. But while we were still shaking hands, such a look of awful desolation came upon her face that I perceived she was one of those creatures that are not the playthings of Time. For her he had died only yesterday. And, by Jove! the impression was so powerful that for me, too, he seemed to have died only yesterday—nay, this very minute. I saw her and him in the same instant of time. (75-76)

인텐디드는 검은 옷을 입고 있으며, 그녀가 있는 방 주위 또한 어둡다. 검은 색은 그녀의 창백한 이마, 파리한 얼굴빛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말로우는 인텐디드의 외모를 어둠과 연결시키면서 진실의 빛을 볼 수 없는 정신적 암흑

을 강조하고 있다. 위의 장면에 대해 스투어트(Garrett Stewart)는 말로우가 커츠의 결말에 대한 어두움과 약혼자가 애도하는 어두움을 구별하지 못하고, 단순히 그녀의 애도를 하찮은 비애감으로 축소시키고 있다<sup>14)</sup>고 풀이한다. 말로우는 인텐디드가 입고 있는 검은 옷을 보며 커츠가 보여준 인간 내면의 어둠을 생각한다. 또한 그녀의 변치 않는 신념이 커츠가 화려한 달변으로써 감추고자 했던 거짓말에 대한 잘못된 신념임을 안다. 하지만 커츠에 대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인텐디드에게 거짓된 믿음을 심어주며, 그녀를 어둠의 환상 속에 가둬 놓는다. 즉, 거짓말을 함으로써 인텐디드로 하여금 커츠에 대한 거짓된 진실에 애도하게 만들고 있다.

말로우가 “내 항해의 끝이며, 내 체험의 절정이었던 경험(It was the farthest point of navigation and the culminating point of my experience.)” (7)이라고 말하는 아프리카 경험, 즉 커츠를 만나 정신적 변화를 겪고, 내면적 성찰을 하게 되는 경험과 비교해 본다면 인텐디드는 똑같은 시간과 장소에 머물러 어떠한 변화도 느끼지 못한 채 진실된 경험을 하지 못한다.<sup>15)</sup> 그녀는 커츠가 죽은 지 일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나 이동 없이 같은 자리에서 그에 대한 잘못된 애도를 하고 있다.

인텐디드는 커츠에 대한 굳은 신념으로 그의 “위대함(greatness),” “관대함(generous mind),” “고귀함(noble heart)” (78)을 찬양하며, 그의 계획이 “원대한 계획(vast plans)” (78) 이었다고 믿는다. 또한 그가 모든 것을 상실했지만 “그의 말은 계속하여 남는다(His words, at least, have not died.)” (78)라고 말한다. 이렇듯 인텐디드는 진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커츠의 말을 기억하며 칭송하고 있다. 그 순간 인텐디드를 묘사하는 말로우는 흑인 원주민 여성을 떠올린다.

14) Garrett Stewart, “Lying as Dying in *Heart of Darkness*,” *PMLA* 95 (1980): p. 330.

15) 콘래드는 남성들만이 내담한 세계에서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여긴다. 또한 그는 여성의 시각에서 진실 혹은 환상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한 남성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Gordon W. Thompson, “Conrad’s Women,” *Nineteenth-Century Fiction* 32.4 (1978): pp. 460-61 참조.

She put out her arms as if after a retreating figure, stretching them back and with clasped pale hands across the fading and narrow sheen of the window. Never see him! I saw him clearly enough then. I shall see this eloquent phantom as long as I live, and I shall see her, too, a tragic and familiar Shade, resembling in this gesture another one, tragic also, and bedecked with powerless charms, stretching bare brown arms over the glitter of the infernal stream, the stream of darkness. (78)

위의 장면에 대해 아체베(Chinua Achebe)는 콘래드가 세련된 서양 여성의 상대역으로 원주민 여성을 등장시키며 서양 여성은 인간답게 그리고 있는데 반해 아프리카 흑인 여성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표현을 억제하고, 더 나아가 아프리카인에게는 언어 능력조차 주지 않았다<sup>16)</sup>고 비판하고 있다. 당시의 제 3 세계 여성은 여성으로서 인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백인 여성의 수단으로만 여겨져 왔다. 아체베는 성별과 인종적 차이로 흑인 여성에게 이중의 고통을 가하는 제국주의자들을 고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햄프슨(Robert Hampson)은 아프리카 여인과 인텐디드 사이의 관계가 아체베가 제시하는 것처럼 대조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아프리카 여성들은 삶(life), 생명력(vitality), 열정(passion)으로 연상되고, 유럽 여성들은 활기없음(lifelessness), 죽음(death)으로 비유되는 관계를 아체베가 무시하였다<sup>17)</sup>고 반박한다.

나델하프트(Ruth Nadelhaft)는 말로우가 인텐디드를 묘사하며 흑인 여성을 회상하는 것은 문화적·인종적 차이와 상관없이 두 여성들의 인간성을 없애고, 그들의 모습을 인위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라고 풀이한다.

---

16) Chinua Achebe, "An Image of Africa: Racism in Conrad's *Heart of Darkness*,"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7th ed., vol. 2 eds. M. H. Abrams et al. (New York: Norton, 2000) p. 2038.

17) Robert Hampson, "*Heart of Darkness* and 'The Speech That Cannot Be Silenced'," *Post-Colonial Theory and English Literature: A Reader* ed. Peter Childs (Edinburgh: Edinburgh UP, 1999) p. 209.

There can be no better rejection of the Intended's individuality than this momentary fusing of the two images into one yearning Woman. Paradoxically, of course, the two women share a kind of victimization which the framework of the tale allows but does not discuss. They have both been shaped by the patriarchal culture of imperialism which creates men like Kurtz and Marlow to be esteemed and adored by such women, all of whom will in the end be abandoned.<sup>18)</sup>

원주민 여성과 인텐디드를 동시에 희생시키고자 하는 말로우의 눈에 비친 원주민 여성은 강물 위로 헐벗은 갈색의 팔을 펴고 있다. 인텐디드 역시 물러가는 사람의 모습을 뒤쫓기라도 하듯 두 팔을 앞으로 내밀고 있는데 두 여성 모두 비극적이고 눈에 익은 허깨비 같은 모습이다. 말로우는 원주민 여성을 떠올리면서 물질적 혹은 성적인 상징이든지 간에 두 여성을 “비극적인 (tragic)” (78)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결국 그는 이 여성들을 인간적으로 보지 않고, 유령과 같은 모습으로 인식한다. 그는 환상으로 가득 찬 인텐디드의 무지를 비웃듯이 원주민 여성을 떠올리지만 두 여성은 문화적·공간적 차이로 결코 만날 수 없는 존재들이다. 말로우는 인텐디드에게 잘못된 믿음을 심어줌과 동시에 원주민 여성의 어두운 진실을 혼자서만 알고 있다.

이처럼 여성에 대한 비인간적인 묘사와 더불어 말로우의 여성 차별적 시각이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부분은 인텐디드에게 거짓말을 할 때이다. 인텐디드와 원주민 여성을 부정하고, 희생시키기 위해 말로우가 선택한 것은 거짓말이다. 거짓말을 통해서 여성의 무지를 입증하고, 여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18) Ruth L. Nadelhaft, *Joseph Conrad: A Feminist Reading* (Hemel Hempstead: Harvester Wheatsheaf, 1991) p. 49.

"His last word—to live with," she [Intended] insisted. "Don't you understand I loved him—I loved him—I loved him!"

I pulled myself together and spoke slowly.

"The last word he pronounced was—your name." (79)

위의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커츠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공포여! 공포!(The horror! The horror!)” (71)임에도 불구하고 말로우는 커츠의 마지막 말이 인텐디드의 이름이었다고 거짓말을 하며 그녀로 하여금 잘못된 환상을 믿게 한다. 또한 거짓말을 함으로써 진리를 독점하고 있으며, 여성들을 거짓의 세계에 존재시키고 있다. 말로우는 커츠에 대한 진실을 인텐디드와 공유하기를 거부하고, 그녀를 진리를 알 수 없는 무지한 존재로 만들고 있다.

스튜어트는 말로우는 거짓말을 죽음과 같은 것으로 표현하며 그러한 거짓말이 정치적·도덕적 심지어 심리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일지라도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극악한 죄라고 주장<sup>19)</sup>하고 있다. “말로우는 거짓말에 죽음의 색채와 향기가 있다고 말하며 거짓말을 아주 혐오했다(There is a taint of death, a flavor of morality in lies—which is exactly what I [Marlow] hate and detest in the world.)” (27)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말로우는 거짓말에 대해 느끼는 암울함보다도 더 절망적인 여성의 위치를 보여준다.

한편 기어리는 커츠의 마지막 말인 “공포”가 실상은 문명과 인텐디드라고 언급한다. 커츠를 타락시킨 문명 속에 살고 있는 인텐디드가 바로 공포라고 설명<sup>20)</sup>하고 있다. 말로우는 커츠의 마지막 말이 인텐디드라고 말함으로써 “공포”가 “인텐디드”라는 등식을 성립시키고 있다.

물론 말로우는 거짓말이 슈나이더(Daniel Schneider)의 주장처럼 인텐디드로 하여금 필요 없는 고통과 상처에서 보호해주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

19) Stewart, p. 319.

20) Geary, p. 506.

주장<sup>21)</sup>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남성들이 생각하는 필요 없는 고통과 상처로부터의 보호가 아닌 진리를 똑바로 볼 수 있는 필요한 경험인 것이다. 즉, 숨겨진 공포의 의미는 커츠가 하는 사업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말로우는 인텐디드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식민지 사업의 추한 사실을 교묘히 감추고 있다.

말로우는 커츠의 타락에 대한 진실을 인텐디드에게 말하지 않는다. 인텐디드는 환상 속에 빠진 채 진실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대상이 되고, 커츠를 파멸로 몰아간 사악한 존재로 남게 된다. 이처럼 말로우는 인텐디드의 존재를 희생시키며, 나아가 여성들이 진리의 세계에 접근할 수 없도록 가부장적인 벽을 세우고 있다.

### C. 타자성과 여성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말로우는 작품에서 일관되게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소설의 남성 우월적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킨다. 즉, 여성들의 열등함을 강조하고, 그들의 복종을 당연시한다. 여성들은 멀시와 소외의 대상이 되어 철저히 주변화된 타자로 나타난다. 그들의 모습은 작품에 드러나지 않거나 단지 작품의 배경으로 보여진다. 이런 측면에서 작품에 나타난 여성들은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부차적인 존재로 여겨져 그들의 역할과 중요성이 축소되어 해석되어 왔다.<sup>22)</sup>

그러나 작품 속 타자화된 여성들의 모습에서 말로우는 인식하지 못했던 중

---

21) Daniel J. Schneider, *Symbolism: The Manichean Vision* (Lincoln: U of Nebraska P, 1975) p. 10.

22) 존즈의 지적처럼 비평가들은 여성들이 콘래드의 창작활동에 미쳤을 어떤 긍정적인 영향력, 소설에서 여성 인물들이 타당한 위치를 차지했을 가능성을 간과하였다. 또한 콘래드가 여성 독자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인지를 몰랐다. Susan Jones, *Conrad and Women* (Oxford: Oxford UP, 1999) pp. 7-8.



요한 역할을 찾아낼 수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무비판적으로 받아 들여져왔던 남성 중심적인 입장을 여성의 관점에서 새롭게 정의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Heart of Darkness*에서 남성의 목소리에 의해 부정적으로 표현된 여성 인물과 이미지를 여성적 시각으로 분석함으로써, 여성들을 미약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에게 도움을 주고 영향력을 미치는 긍정적인 인물로서, 혹은 남성들의 지배와 억압에 저항할 수 있는 위협적 힘을 가진 존재로서 부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말로우는 숙모의 도움을 받아 선장직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마워하기는 커녕 “나 찰리 말로우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여자에게 부탁했어.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 싶겠지?(Then—would you believe it?—I tried the women. I, Charlie Marlow, set the women to work—to get a job.)” (8)라고 경멸조로 말하며, 그녀의 도움을 수치스러워 한다.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선장직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에 실망하였고,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이를 수 없었던 것을 가능하게 한 숙모를 경멸하고 조롱함으로써 자신의 무기력함을 감추고 있다. 이것은 말로우의 이중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그의 나약하고도 위선적인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다른 모든 남자 친척들에게 선장직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지만, 번번이 거절당하게 되고 결국은 숙모에게 의지하게 된 것이다.

“숙모는 말로우를 위해 어떤 것도 할 준비가 되어있는(I [aunt] am ready to do anything, anything for you [Marlow].)” (8) 존재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여성이다. 그녀는 “말로우가 어렸을 때 가고 싶어했던(When I [Marlow] grow up I will go there.)” (8) 콩고 여행을 실현시키는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 숙모가 없다면 말로우의 콩고 여행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숙모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선장직을 구하기 위한 그녀의 노력을 경시하고 있다. 당시 가부장적 사회의 남성 우월적인 사고방식에 젖어있는 말로우는 감정적 어조로 숙모를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

말로우가 의존하게 되는 숙모의 진실된 모습과 전혀 다른 것이다. 하이랜드 (Peter Hyland)는 남성 중심적 시각으로 숙모의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그의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Marlow<sup>8</sup>'s idea that women are out of touch with truth does not, indeed, seem to derived from examined experience at all, since from every indication in the book he appears to have had very little experience of women, his own world being a closed, masculine one. He is thinking, rather, in terms of the clichés and catch-phrases of the Victorian stereotype.<sup>23)</sup>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말로우는 빅토리아 시대의 상투적이고, 인습화된 표현을 사용하여 숙모를 묘사한다. 숙모에 대한 진부한 표현은 그가 여성들과의 경험이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그는 폐쇄된 남성의 세계에서, 여성과의 경험을 통해 검증된 사실이 아닌 자신의 편견된 생각으로 숙모를 폄하하고 있다.

말로우는 “수백만에 달하는 무지몽매한 원주민을 그들의 무시무시한 풍습에서 구원해 주어야 한다고 말한 숙모 때문에 굉장히 불쾌해지고(She [aunt] talked about ‘weaning those ignorant millions from their horrid ways,’ till, upon my word, she made me quite uncomfortable.)” (12), 숙모가 식민 사업에 대한 진실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여성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숙모가 한 말은 말로우에게 경멸을 받아야 할 여성의 무지가 아니다. 왜냐하면 숙모의 견해에 특별히 여성적인 특성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단지 식민 사업에 대한 유럽인들의 태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러한 숙모의 생각은 커츠의 보고서에 나타난 “모든 야만인들을 말살하라!(Exterminate all the

---

23) Peter Hyland, “The Little Women in the *Heart of Darkness*,” *Conradiana* 20.1 (1998): p. 6.

brutes!)” (51)는 말과 똑같은 것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당시 유럽 사회에 일반화된 개념이었다.

나델하프트는 콘래드의 소설에서 여성 인물들이 비평적 관심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그들이 비평적인 힘을 지닌 중요한 존재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남성 중심적인 시각에 의해 여성들의 존재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유럽사회에 대해 콘래드가 회의를 느끼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sup>24)</sup>고 주장한다. 나델하프트는 콘래드가 강력한 여성 이미지를 창조함으로써 작품에서 여성 인물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콘래드가 이 작품에서 가부장제에서 벗어난 여성상을 표현했다는 주장에는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다. 오히려 작품 전반에 걸쳐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으며, 그것은 남성 우월주의적 시각에 기반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여성에 대한 말로우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찾아보기 힘들다. 콘래드의 의도든 아니든 나델하프트 역시 작품에 나타난 여성의 긍정적 역할을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주의적 비평의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In her zeal to gratify her nephew's expressed need, the aunt demonstrates that fidelity to the individual above all which characterizes so many of Conrad's women throughout his writing career. Rather than the abstractions to which men seem to devote themselves—Duty, Fidelity, Work, Courage—which end so often in disillusion and in a perplexing variety of failures, women seem rather to focus sharply on the individual and the specific.<sup>25)</sup>

---

24) Nadelhaft, p. 9.

25) Nadelhaft, pp. 43-44.

위의 설명에서 보여지듯이 숙모는 중요한 인물로서 말로우가 이루지 못한 소망을 이루는데 구체적인 도움을 준다. 남성들은 의무, 충성, 일, 용기와 같은 추상적인 것을 추구하며 실패하는 반면 숙모는 개별적이고, 특정한 말로우의 희망을 이뤄주기 위해 노력한다.

숙모는 “열성적인 여성(enthusiastic soul)” (8)으로, 말로우를 위해 “어떤 수고라도 아끼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다(“She was determined to make no end of fuss . . . .)” (9). “숙모는 각계각층의 명사를 알고 있는 영향력 있는 인물로(I [She] know the wife of a very high personage in the Administration, and also a man who has lots of influence with, etc. etc.)” (9), 말로우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그는 곧장 선장직에 임명된다(I [He] got it very quick)” (9). 또한 콩고에 가서 지배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숙모의 영향력이 이 젊은이에게까지 미치고 있음(My dear aunt’s influential acquaintances were producing an unexpected effect upon that young man.)” (26)을 느끼며 숙모의 능력을 실감하게 된다.

세드락(Valerie Sedlak)은 숙모가 현실세계에서 실질적으로 말로우에게 도움을 주고, 돌보아주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고 주장<sup>26)</sup>한다. 숙모는 “그를 꼭 껴안아주며 그에게 플란넬 옷을 입고 다니고, 편지를 자주 쓸 것을 당부하고 있다(I [He] got embraced, told to wear flannel, be sure to write often, and so on—and I left.)” (12-13). 또한 말로우가 브뤼셀로 돌아 왔을 때, 기력이 쇠약해진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숙모(aunt’s endeavors)” (73)의 모습은 마치 자상한 어머니를 연상시킨다. 숙모는 말로우가 콩고로 가기 전이나, 콩고에서 브뤼셀로 다시 돌아온 후이나 한결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대하고 있다. 이렇듯 숙모는 단순히 무지하고 열등한 타자로 축소될 수 없는 영향력 있는 역할을 한다.

26) Valerie F. Sedlak, “A World of Their Own’: Narrative Distortion and Fictive Exemplification in the Portrayal of Women in *Heart of Darkness*,” *CLA Journal* 32.4 (1989): p. 446.

말로우는 콩고로 가기 전 출발 준비를 위해 브뤼셀 사무실에 가게 되며, 그곳에서 두 명의 여성을 만나게 된다. 한 명은 나이가 젊어 보이는 여성으로 “뜨개질하는 눈을 쳐들지도 않은 채(with downcast eyes),” “아무런 말없이(without a word),” “앞장서서(preceded me)” (10) 남성들을 식민지로 보내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다른 한 명인 나이든 여성은 바보스럽고, 명랑한 얼굴을 한 젊은이들에게 지혜의 눈길을 주고 있다. 그런데 “그녀의 시선은 마치 그 젊은이들과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She [her glance] seemed to know all about them and about me too.)” (11) 듯한 의미를 담고 있다. 말로우는 이 여성이 자신에 대해서, 심지어 자신이 모르는 진실까지도 알고 있다고 느끼며, 그녀의 시선을 두려워하게 된다. 여성의 무관심한 시선에 무서움을 느낀 말로우는 그녀를 “불가사의하고, 숙명적인(uncanny and fateful)” (11) 존재로 생각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성의 냉랭한 시선이 남성의 시선에 반응하지 않겠다는 거부와 무시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즉, 말로우에게 불안감을 주는 위협의 눈짓으로, 남성의 지배와 권위를 무력케 하는 힘을 갖고 있다. 여기서 모든 여성들이 진실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존재라는 말로우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만다. 왜냐하면 뜨개질하는 여성들은 남성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경험하게 될 사실들을 미리 꿰뚫고 있고, 말로우가 모르는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남성들이 “바보스러운(foolish)” (11) 존재들로 무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나이든 여성의 시선은 말로우의 의식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 그는 아프리카에 가서도 고양이를 데리고 뜨개질을 하던 여성을 기억하게 된다.

The knitting old woman with the cat obtruded herself upon my memory as a most improper person to be sitting at the other end of such an affair. (66)

위 인용에서 보듯이 나이트 여성은 여성의 접근을 차단하고자 하는 말로우의 기억 속에 나타나 그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는 존재이다. 말로우의 기억 속에 나타난 여인에 대해 스미스(Johanna Smith)는 타자로부터 거리를 두어 여성의 세계와 남성의 세계를 분리하고자 하는 말로우의 시도와 노력이 여성의 힘에 의해 실패로 끝나고 있다<sup>27)</sup>고 설명하고 있다. 여성을 배제시키고자 하는 말로우의 기억의 세계에 침입하여 그의 머릿속에 남성/여성으로 철저히 구분된 경계를 허물고 있는 것이다.

보드(Rita Bode)는 이 작품이 강력한 여성적 구조로 이루어진 작품이라고 주장<sup>28)</sup>하기도 한다. 뜨개질하는 두 여성은 말로우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들로, 이들이 사건을 관장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말로우의 머릿속을 배회하며 위협을 가하는 여성은 신비스럽고, 알 수 없는 힘을 지닌 존재이다. 또한 여성들의 뜨개질은 남성들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여성적 힘을 암시한다. 즉, 식민 사업의 결과를 암시하는 것으로, 여성들은 이미 식민 사업의 실체를 알고 있으면서 남성들로 하여금 그 사업의 파멸을 경험하게 하고 있다.

세탁부 여성에 대한 표현은 단지 한 문장으로만 묘사된다. “그녀는 이 일을 아주 싫어했어요(She had a distaste for the work.)” (18)라는 한 구절 속에 원주민 여성이 남성의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남성에게 “싫어요!” 라는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세탁부 여성의 거절은 무시할 수 없는 저항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회계 주임이 여성의 저항은 다스리기가 “어려운 일이었다(It was difficult.)” (18)고 말하고 있듯이, 원주민 여성은 권위와 지배의 억압에 무기력하고, 수동적으로 체념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거센 저항을 하고 있음을 알

27) Johanna M. Smith, “‘Too Beautiful Altogether’: Patriarchal Ideology in *Heart of Darkness*,” *Heart of Darkness: A Case Study in Contemporary Criticism* ed. Ross C. Murfin (New York: St. Martin’s, 1989) p. 187.

28) Rita Bode, “They . . . should be out of it’: The Women of *Heart of Darkness*,” *Conradiana* 26.1 (1994): pp. 23-24.

수 있다.

작품에서 원주민 여성의 모습은 서구 남성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에서 탈피한 당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인종을 넘어서 백인 남성에게 거절의 뜻을 당당히 밝힐 수 있는 세탁부 여성을 통해서, 가부장제에서 노예화되고 종속된 제 3세계 여성들의 지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sup>29)</sup>

말로우는 내륙 주재소에서 커츠가 그 곳에서 머물렀을 때 그린 “한 여성이 눈을 가린 채 횃불을 들고 있는(. . . representing a woman, draped and blindfolded, carrying a lighted torch.)” (25) 그림을 보게 된다. 언뜻 그림 속 여성은 제국주의 전성기 때 가해졌던 억압으로 인해 앞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당당한 동작과 얼굴에 비친 횃불의 효과는 이 여성을 단순히 힘없는 여성으로 단정지을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속 여성은 작품 속 다른 여성들의 등장을 예고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여성들의 모습을 반영한다. 작품에서 여성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소설의 “여성적 구조(female network)”<sup>30)</sup>를 이루며 남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록 눈으로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녀의 자세는 여전히 당당하고, 강력한 것이다. “어둡고 불길한(sombre and sinister)” (25) 분위기는 말로우를 두렵게 했던 뜨개질하는 두 여성의 위협적인 힘과 같고, “당당하게(stately)” (25) 보이는 모습은 말로우가 설명할 수 없는 위엄을 가지고 있는 커츠의 원주민 여성의 모습을 예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게다가 커츠의 그림 속 여성의 얼굴에 비친 횃불은 아프리카 대륙의 빛의 전조가 됨으로써, 유럽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높은 위치로부터 곧 물러나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 문명화 사업의 허구를 직접적으로 비추주고 있는 불길한

---

29) *Heart of Darkness*에서 콘래드는 백인 여성과 흑인 여성의 서로 다른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데, 타자화된 여성들 중에서도 ‘타자의 타자’가 되고 있는 흑인 여성들은 백인 여성에 비해 더욱 왜곡되고, 억압적인 위치에 있다. 여성주의 비평은 기존의 백인 여성 중심에서 벗어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시각으로 흑인 여성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서울: 여이연, 2001) pp. 40-42 참조.

30) Bode, pp. 30-33 참조.

햇불은 그림의 어두운 배경을 밝히지도 못한 채 오히려 여성의 얼굴에 불길 함만을 더하고 있다. 햇불은 문명을 위장한 거짓된 빛으로 커츠의 경험을 비춰주고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파멸을 암시하고 있다. 커츠는 1년 전에 그렸던 이 그림을 주재소에 남기고 갔는데, 그림을 버리고 갔다는 사실은 커츠가 경험했던 부적절한 삶을 반영하고 있다.<sup>31)</sup> 즉, 희망을 상실하거나 혹은 희망을 거부하며,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커츠의 내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커츠의 그림은 명암의 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은 단순히 빛과 어둠을 이용한 미학적인 표현이 아닌 빛이 어둠으로 변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sup>32)</sup> 빛과 어둠은 이중적으로 사용되어 여성의 얼굴에 비친 빛의 어두운 효과를 강조함으로써 남성들의 사업의 타락과 파멸의 어두움을 암시하고 있다.

한편 원주민 여성은 말로우에게 알 수 없고, 불가사의한 존재로 보인다. 말로우는 원주민 여성의 진실에 대해 모른다. 오로지 자신의 문화적 지침으로 원주민 여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녀를 이해할 수 없고, 그녀가 어떠한 힘을 지녔는지도 알 수 없다. 이름도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나타난 원주민 여성은 아프리카 악을 상징하는 여성, 인간적 정체성이 없는 타자화된 여성으로 표현되었다. 하지만 작품에서 중심적인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며, 말로우가 설명할 수 없는 힘을 갖고 있는 존재이다.

She is a woman from another culture, a tribal culture. Marlow does not know her position in that African tribe. . . . He does not even understand her language. Her world of alien to him, and in the sense that he does not understand the realities of her culture of her position in it, she is a mystery to him in both a

---

31) Mark S. Sexton, "Kurtz's Sketch in Oils: Its Significance to *Heart of Darkness*," *Studies in Short Fiction* 24.2 (1987): p. 388.

32) Bode, p. 31.



profound and a mundane sense. Again, his earlier statements about woman being out of touch with truth and living in a world that is too beautiful simply do not hold for this woman, whom he associates with tragedy.<sup>33)</sup>

위의 설명에서처럼 말로우는 원주민 여성이 살고 있는 부족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족 내 그녀의 위치도 파악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숙모를 비롯한 모든 여성들이 아름다운 세계에 살고 있다는 주장은 원주민 여성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원주민 여성은 문명화되고, 안락한 유럽의 세계에 살고 있지 않다. 그녀는 문명에 의해 착취당하고, 침략 당한 비극적인 식민지 세계에 있다.

우리는 앞서 뜨개질하는 두 여성이 그리스·로마 신화의 운명의 세 여신처럼 운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인물로 상징화되고 있음을 보았다. 뜨개질하는 두 여성과 세 여신을 비유시킨다면 하나의 여신의 역할이 남게 되는데, 그 세 번째 여신을 원주민 여성과 연결시켜, 삶의 실을 끊어버리는 여신 아트로포스(Atropos)와 원주민 여성을 동일시 할 수 있다. 원주민 여성은 아트로포스의 역할을 수행하며, 말로우와 그가 이전에 살았던 세계를 연결짓는 유대의 끈을 영원히 끊어버린다. 그래서 결코 도망갈 수 없는 여성화된 정글로 그를 유혹한다. 뜨개질하는 나이든 여성이 말로우의 기억 속에 나타난 것처럼, 원주민 여성은 인텐디드를 만날 때 말로우의 머릿속을 배회한다. 즉, 두 여성은 말로우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상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녀는 뜨개질하는 여성과 협력하여 말로우에게 결코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고 경고한다. 말로우는 브뤼셀로 돌아왔을 때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된다. 브뤼셀은 그가 살았던 곳과 너무나 다른 브뤼셀이다.

I found myself back in the sepulchral city resenting the sight of

---

33) Sedlak, p. 456.

people hurrying through the streets to filch a little money from each other, to devour their infamous cookery, to gulp their unwholesome beer, to dream their insignificant and silly dreams. They trespassed upon my thoughts. They were intruders whose knowledge of life was to me an irritating pretence, because I felt so sure they could not possibly know the things I knew. (72)

말로우는 브뤼셀을 무덤 같은 도시로 인식하고,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을 허식에 불과한 삶을 살고 있는 침입자라고 생각한다. 분명히 그는 브뤼셀에 살고 있었던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콩고에서 돌아 온 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모해버렸다. 그리하여 말로우는 “그 자신의 세계에서만(world of his own)” 영원히 살게 된다.<sup>34)</sup> 바꾸어 말하면, 브뤼셀의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도 전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고, 그 곳의 문화를 공유할 수 없는 자신만의 세계에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여성들이 남성들과 함께 살 수 없는 “그들의 세계에서만(world of their own)” (12) 산다는 말로우는 표현을 뒤엎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말로우는 여성들을 남성들의 세계에서 차단하고, 배제하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그는 여성의 힘에 의해 이전에 자신이 살았던 세계에서 제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주민 여성의 “속을 헤아릴 수 없는 목적(inscrutable purpose),” “억제할 수 없는 욕구(uncontrollable desire),” “꿋꿋한 눈초리(unswerving steadiness of her glance)” (62)는 단순히 넘길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표현들은 억압받는 타자성을 극복하려는 저항과 거부의 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미스는 말로우는 여성을 상징화하고, 정글을 의인화시킴으로써 위협적인 여성의 힘과 섹슈얼리티를 없애고 있다<sup>35)</sup>고 지적한다. 말로우는 섹슈얼리티의 암시를 정글로 대치시키고 있다. 만약

---

34) Bode, pp. 25-26.

35) Smith, p. 186.

이러한 섹슈얼리티가 정글에서 원주민 여성의 몸으로 옮겨간다면 그녀의 헤아릴 수 없는 목적은 성적인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원주민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하늘에 닿기 위한(touch the sky)” (62) 욕망으로 위장하면서 여성성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있다.

더구나 여성의 침묵은 말로우의 언어 능력에 못지 않은 힘을 갖고, 그의 말을 능가하고 있다. 말로우는 “원주민 여성의 엄청난 침묵에 압도당하고 만다 (A formidable silence hung over the scene.)” (62). 그녀는 말로우에게 침묵의 힘을 보여줌으로써 더욱 더 명료하고 강렬한 저항의 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백인들이 쏘아대는 총소리에도 불구하고, “원주민 여성은 몸을 전혀 움츠리지도 않고(Only the barbarous and superb woman did not so much as flinch . . . .)” (69), 기세 등등하게 백인들과 맞서고 있다.

파농(Frantz Fanon)은 언어현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언어자체는 절대적으로 타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며, 언어 구사능력에 따라 백인화의 정도를 평가받는다<sup>36)</sup>고 기술했다. 즉, 식민지인들은 백인화되기 위해서 그들의 흑인성과 원시성을 버리기를 원하며, 식민모국의 문화적 수준과 언어를 배우고자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말로우의 시각에 왜곡되게 비춰진 원주민 여성이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녀가 흑인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백인화될 수 없다는 결과를 암시한다. 하지만 원주민 여성의 고함소리에 대해 “당신은 저 소리의 뜻을 아십니까?(Do you [Kurtz] understand this?)” (68)라고 말로우가 묻자, 커츠는 “제가 그 뜻을 왜 모르겠어요(Do I not?)” (68)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말로우가 이해하지 못하는 원주민 여성의 말을 커츠는 분명히 이해하고 있고, 커츠와 원주민 여성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원주민 여성이 언어 능력이 없다면 커츠는 언어 능력을 잃었을 것이다. 또한 유럽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대신 그녀는 흑인성(blackness)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커츠는 백인 사회의 문화적 규범이나 원칙에 어긋나는 온갖 악

---

36) Frantz Fanon, 이석호 역, 『검은 피부 하얀 가면』 (서울: 인간사랑, 1998) p. 25 참조.

행을 저지르며 그의 백인성(whiteness)을 잃어버렸다.<sup>37)</sup>

요컨대 원주민 여성은 말로우의 삶에 영향을 미쳐 그를 이전에 살던 세계로부터 단절시키는 강력한 여성이다. 또한 그녀의 침묵은 말로우의 가부장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언어를 제압하는 저항의 의미를 암시한다. 오직 “목소리로써 담론을 펼치고 있는 커츠(Kurtz discoursed. A voice! a voice!)” (69)를 그의 달변의 힘으로부터 추락하게 하여 그가 속했던 모든 문화의 기준들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다.

원주민 여성의 모습과 달리 말로우는 인텐디드를 처음 보는 순간 그녀가 “아름다운 표정(beautiful expression)” 과 “진실성(trustfulness)” (74)을 지니고 있음을 느낀다. “그녀의 눈은 속임이 없고, 심오하며, 신념으로 가득 차 있다(Their glance [Her eyes] was guideless, profound, confident, and trustful.)” (76). “인텐디드는 커츠에 대한 변함 없는 성실과 믿음으로 고통을 이겨낼 성숙한 능력이 있다(She [Intended] had a mature capacity for fidelity, for belief, for suffering.)” (76).

“You knew him best,” I repeated. And perhaps she did. But with every word spoken the room was growing darker, and only her forehead, smooth and white, remained illumined by the unextinguishable light of belief and love. (76)

위의 묘사처럼 인텐디드의 하얀 이마는 어두운 방에서 돋보이고 있다. 그것은 오랜 기다림과 외로움 속에서도 커츠에 대한 “꺼지지 않은 믿음과 사랑의 빛(unextinguishable light of belief and love)” 을 보여준다. 앞서 말로우는 어두운 방의 묘사를 통해 인텐디드의 무지를 강조하려 하였지만, 그녀가 지닌

---

37) Carole Stone and Fawzia Afzal-Khan, “Gender, Race and Narrative Structure: A Reappraisal of Joseph Conrad’s *Heart of Darkness*,” 2 Feb. 2000 <<http://www.chss.montclair.edu/english/furr/pursuits/afzalstone.html>>.

따뜻한 마음과 영혼의 빛은 어두운 방과 대조되어 더욱 밝게 빛나고 있다.

더 나아가 맥클로클랜(Juliet McLauchlan)은 커츠에 대한 사랑과 헌신, 정절을 유지하는 인텐디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

It is the inner light of her heart and soul which must not be extinguished; the great and "saving illusion"<sup>38</sup> *even though illusory*, must be allowed to survive. The glow is "unearthly"<sup>38</sup> precisely because all it represents has not been brought down to earth, and probably never will be, for the word "illusion"<sup>38</sup> (as so consistently used by Conrad) is crucial.<sup>38</sup>

인텐디드의 마음과 영혼의 내적인 가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 그것이 비록 환상일지라도 인간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더욱이 그녀의 환상은 세속적 의미를 초월한 위대한 것이다. 인텐디드는 마지막까지 커츠에게 충실하며, 그의 약혼녀였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다.

'But you have heard him! You know!' she cried.

'Yes, I know,' . . .

'No!' she cried. 'It is impossible that all this should be lost—that such a life should be sacrificed to leave nothing—but sorrow. You know what vast plans he had. I knew of them. Something must remain. His words, at least, have not died.'

'His words will remain,' I said.

'And his example,' she whispered to herself. 'Men looked up

---

38) Juliet McLauchlan, "The Value and Significance of *Heart of Darkness*," *Conradiana* 15.1 (1983): p. 7.

to him—his goodness shone in every act. His example—<sup>8</sup>

‘True,’ I said; ‘his example, too. Yes, his example.’ (77-78)

위의 대화에서 말로우는 인텐디드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며, 그녀의 말을 모두 인정한다. 다시 말하면, 인텐디드는 대화를 직접 주도하며 말로우로 하여금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도록 한다. 말로우는 인텐디드의 말에 복종하게 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거나 창조할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으며, 단순히 그녀가 한 말을 모방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기 위해 커츠의 마지막 한마디가 그녀의 이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 이처럼 인텐디드는 말로우로부터 자신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게 되고, 살아갈 중요한 힘을 얻고 있다.

앞서 말로우는 여성들이 “너무나 아름다운(too beautiful altogether)” (12) 세계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인텐디드가 아름다운 세계에서 살아 가고 있다고 단정짓기가 어렵다. 비록 유럽 문명의 안락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고, 말로우의 거짓말로 인해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는 하나 그녀는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렸고, 평생 그 사랑에 대한 그리움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껏 커츠를 기다려온 “그녀의 삶이 불행하고(I [She] am unhappy for—for life.)” (77) 고통과 외로움의 연속이었다고 추측해볼 때, 여성들이 아름다운 이상적인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말로우의 주장은 억지스럽다. 인텐디드는 기다림과 외로움의 세계에서도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변함 없는 사랑을 가지고, 고독을 이겨내고 있는 것이다.

인텐디드와의 마지막 장면에서 구네티렉(D. C. L. A. Goonetilleke)은 인텐디드가 말로우에게 중요한 인식을 깨우쳐 주는 인물이라고 주장한다.

But it seems to me that his ‘culminating point’<sup>8</sup> is different from what he thinks: it occurs not during the Kurtz phase, the climax

of Conrad's tale, but in this final scene with Kurtz's Intended. During the Congo journey Marlow becomes more aware of things, but he now sees that illusions are necessary for survival.<sup>39)</sup>

구네티렉은 말로우가 인텐디드를 만남으로써 “최고의 경험(culminating point of my [Marlow's] experience)” (7)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말로우는 환상이 살아가는데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그것 없이는 인간이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있다. 말로우의 깨달음은 인텐디드의 헌신과 믿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녀의 커츠에 대한 충절은 말로우가 여성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인텐디드는 말로우가 콩고 경험에서조차 미처 깨닫지 못한 삶의 진실을 깨우쳐주는 여성이다.

“말로우는 인텐디드가 보여주고 있는 구원의 환상 앞에서, 그녀가 품고 있는 믿음 앞에서 머리를 숙이게 된다(. . . bowing my [his] head before the faith that was in her, before that great and saving illusion . . . .)” (77).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가장 좋은 점을 찾아내어, 그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는 커츠(He [Kurtz] drew men towards him by what was best in them.)” (77)의 능력을 칭찬하며, 그를 “위대한 천품(gift of the great)” (77)을 지닌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 게다가 위대한 커츠의 죽음이 “자신을 비롯한 우리들에게 손실이라고 말하며(What a loss to me [her]—to us!)” (77), “아름답고 너그러운 마음(beautiful generosity)” (77)을 드러내고 있다. 인텐디드는 커츠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에게서 삶의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커츠에 대한 기다림과 외로움을 따뜻한 마음과 영혼의 빛으로 승화시키는 인텐디드의 역할과 가치가 돋보이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Heart of Darkness*에서 여성들은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인물로서 재해석될 수 있다. 또한 그들로부터 고독을 극복하

---

39) D. C. L. A. Goonetilleke, “Ironies of Progress: Joseph Conrad and Imperialism in Africa,” *Literature and Imperialism* ed. Robert Giddings (New York: St. Martin's, 1991) p. 106.

고, 결속에 이르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작품에서 여성들이 인간 관계의 책임과 가치를 강조하고, 다른 사람들을 교화시켜, 따뜻한 감정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브로디(Susan Brodie)의 주장<sup>40)</sup>은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능케 하는 단초가 되고 있다.



---

40) Susan Lundvall Brodie, "Conrad's Feminine Perspective," *Conradiana* 16.2 (1984): pp. 151-52.



## IV. 결 론

본 논문은 그 동안 여성주의 비평과 탈식민주의 비평의 어느 한 측면에서만 논의되어 왔던 *Heart of Darkness*의 타자성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이 작품에 나타나는 타자성의 양상을 살펴보고, 타자성의 해체와 여성을 분석함으로써, 억압과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궁극적 가치로서의 타자성의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중심으로 본론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결론을 맺으면 다음과 같다.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 이르러 절정에 달했던 극단적 지배 논리는 타자들을 열등한 존재로 치부하여 정치·문화적으로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데 이용되었다. 유럽 중심적인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아프리카, 원주민, 여성은 지역, 인종, 성별 면에서 열등한 타자의 범주에 속하고, 어둠과 악, 소외, 광기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연상된다. 말로우는 유럽 중심적 지배 이데올로기의 타성에 젖어있는 인물로 아프리카 콩고로 향하면서 아프리카를 암흑과 원시의 타자적 세계로, 원주민과 여성을 미개하고 열등한 타자로 인식한다. 따라서 그는 아프리카를 개발하고, 원주민을 개화시키는 제국주의자들의 문명화 사업을 위대하고도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말로위가 아프리카 오지의 식민지에서 보게 되는 것은 문명화 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백인들의 잔학성과 문명의 위선이다. 오로지 물질적 탐욕을 채우기 위한 그들의 잔인하고 흉포한 모습은 커츠의 도덕적 타락에서 절정에 이르게 된다. 식민지의 참혹한 실상과 커츠의 죽음을 목격한 말로우는 유럽 문명과 인간성에 대한 깊은 사색과 회의를 하게 된다. 그에게 아프리카는 더 이상 타자적 공간이 아니다. 그 곳은 위선적이고 타락한 문명의 세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생명력과 신비로움을 잃지 않는 진실된 세계로 비춰진다. 아프리카 밀림은 착취와 수탈을 일삼는 제국주의자들에게는

적대성과 보복 가능성을 드러내는 반면 힘없고 나약한 원주민에게는 넓은 가슴으로 포용하는 자애로움을 보여준다. 또한 원주민은 미개하고 열등한 타자적 존재가 아니라 열정과 강력한 생명력을 지닌 순수한 인간으로 인식된다. 그들은 자제력이라는 참된 인간적 자질을 지니고 있다. 원주민의 자제력은 제국주의자들에게서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백인보다 더욱 더 인간적이고 긍정적인 가치를 나타낸다.

아프리카의 경험을 통해 말로우는 유럽 문명의 모순과 유럽인들의 도덕적 타락을 직시하게 되고, 커츠를 만남으로써 인간의 내면의 악을 꿰뚫어볼 수 있었다. 그는 유럽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아프리카와 원주민의 생명력을 인정하고, 긍정적 측면을 찾아내는 의식의 변화를 겪게 된다. 열등한 타자성에서 위협적이고, 저항적인 힘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그는 오히려 유럽인들의 가식적인 삶에 혐오감을 느끼게 된다.

말로우는 이와 같이 주체와 타자라는 이분법적 경계를 허물고 아프리카의 정적과 원주민의 자제력을 공존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에 대한 그의 남성 중심적 시각은 변화되지 않는다. 그는 여전히 여성을 타자로 바라보며, 작품에서 부차적인 존재로 인식한다. 여성이 소외당하고 억압받는 타자임에도 불구하고, 작품에 나타난 말로우의 여성에 대한 표현은 타자성 해체와 거리가 멀다. 다시 말해, 타자성의 범주에서 여성을 비판의 대상으로 부각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타자성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에서 말로우가 뚜렷이 인식하지 못했던 여성들을 재조명해봄으로써 여성들의 중요한 역할을 밝혀낼 수 있다.

숙모는 영향력 있는 인물로 말로우가 콩고 행 기선의 선장이 되도록 해준다. 그녀는 말로우가 자신의 힘으로 이를 수 없었던 그의 소망을 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어머니처럼 그를 격려해주고 보호해주는 따뜻한 여성이다. 뜨개질하는 여성들 역시 말로우가 알지 못하는 지혜를 가진 인물들로, 식민지 사업의 결과에 대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말없이 남성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은 남성들의 권위체제에 대한 반발이며, 지배 이데올로기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위협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커츠에 대한 변함 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인텐디드는 인간관계의 책임과 가치를 강조하고, 남성들을 따뜻한 감정으로 인도하며, 말로우가 깨닫지 못한 삶의 진실을 깨우쳐 준다. 세탁부 여성은 이중적인 억압과 고난 속에서도 제국주의 남성의 노동력 착취에 대해 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줄 아는 당당한 여성이다. 원주민 여성은 기세 등등하게 백인들의 침략에 맞서고 있고, 저항의 방법으로 침묵을 사용하고 있다. 그 침묵은 제국주의 지배와 억압의 언어를 제압하는 진복의 의미를 암시한다. 이러한 점에서 *Heart of Darkness*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은 작품 구성의 중요 인물로 비중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콘래드는 주위의 열강들에 의해 제국주의적 침략을 받았던 폴란드에서 태어나 절망적인 정치적 상황을 겪고, 부모의 죽음으로 인한 소외된 삶을 경험했다. 그는 *Heart of Darkness*에서 가부장제와 제국주의의 폐단을 드러내는 사회제도를 보여 주고 있다. 즉, 작품에서 보잘것없고, 미약한 존재로 타자화된 아프리카, 원주민을 통해 당대의 지배구조의 폭력과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저항의식과 사회 비판의식이 내포된 *Heart of Darkness*에서조차 여성은 소홀히 다루어졌다. *Heart of Darkness*를 비평함에 있어서 사회적·문화적으로 멸시와 차별 받았던 여성을 다시 평가하는 여성주의 비평으로까지 시각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Works Cited

- Abrams, M. H., et al., eds.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7th ed. Vol. 2. New York: Norton, 2000.
- Baines, Jocelyn. *Joseph Conrad: A Critical Biography*. London: Weidenfeld and Nicolson, 1960.
- Barnett, Clive. "'A Choice of Nightmares': narration and desire in *Heart of Darkness*." *Gender, Place and Culture* 3.3 (1996): 277-91.
- Bergenholtz, Rita A. "Conrad's *Heart of Darkness*." *Explicator* 53.2 (Winter 1995): 102-6. Winter 1995 <<http://proquest.umi.com/pqdweb?TS=1051173434&RQT=309&CC=2&Dtp=1&Did=0000...>>.
- Bode, Rita. "They . . . Should Be Out of it': The Women of *Heart of Darkness*." *Conradiana* 26.1 (Spring 1994): 20-34.
- Boehmer, Elleke. *Colonial and Postcolonial Literature*. Oxford: Oxford UP, 1995.
- Bradley, Candice. "Africa and Africans in Conrad's *Heart of Darkness*." A Lawrence University Freshman Studies Lecture. 24 Jan. 1996 <<http://www.cx.unibe.ch/ens/cg/africanfiction/conrad/bradley/bradley.html>>.
- Brodie, Susan Lundvall. "Conrad's Feminine Perspective." *Conradiana* 16.2 (1984): 141-54.
- Childs, Peter, ed. *Post-Colonial Theory and English Literature: A Reader*. Edinburgh: Edinburgh UP, 1999.
- Colbron, Grace Isabel. "Joseph Conrad's Women." *Bookman* 38 (January 1914): 476-79.
- Conrad, Joseph. *Heart of Darkness: An Authoritative Text Backgrounds and*

- Sources Essays in Criticism*. Ed. Robert Kimbrough. New York: Norton, 1963.
- David, Deirdre, ed. *The Victorian Novel*. Cambridge: Cambridge UP, 2001.
- Eagleton, Terry, Fredric Jameson, and Edward Said, eds. *Nationalism, Colonialism and Literature*.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1990.
- Ellison, Ralph. *Invisible Man*. New York: Vintage Books, 1972.
- Fanon, Frantz. *The Wretched of the Earth*. Trans. Constance Farrington. New York: Grove, 1963.
- Galef, David. "On the Margin: The Peripheral Characters in Conrad's *Heart of Darkness*." *Journal of Modern Literature* 17.1 (Summer 1990): 117-38.
- Geary, Edward A. "An Ashy Halo: Women as Symbol in *Heart of Darkness*." *Studies in Short Fiction* 13 (1976): 499-506.
- Giddings, Robert, ed. *Literature and Imperialism*. New York: St. Martin's, 1991.
- Hawkins, Hunt. "The Issue of Racism in *Heart of Darkness*." *Conradiana* 14.3 (1982): 169-71.
- Hawthorn, Jeremy. *Joseph Conrad: Narrative Technique and Ideological Commitment*. London: E. Arnold, 1990.
- Henricksen, Bruce. "*Heart of Darkness* and the Gnostic Myth." *Mosaic* 11.4 (1978): 35-44.
- Hill, Patricia L. "The Dark/Black-Bad, Light/White-Good Illusion in Joseph Conrad's *Heart of Darkness* and *Nigger of the Narcissus*." *Western Journal of Black Studies* 3.4 (Winter 1979): 271-79.
- Hyland, Peter. "The Little Women in the *Heart of Darkness*." *Conradiana* 20.1 (1988): 3-11.

- Jones, Susan. *Conrad and Women*. Oxford: Oxford UP, 1999.
- Jordan, Elaine, ed. *Joseph Conrad*. New York: St. Martin's, 1996.
- Lewis, Pericles. "‘His Sympathies Were in the Right Place’: *Heart of Darkness* and the Discourse of National Character," *Nineteenth-Century Literature* 53.2 (1998): 211-44. 1 Sep. 1998 <[http://0-infotrac.galegroup.com.unistar.uni.edu/itw/infomark/530/276/34699134w7/?url=rc1\\_EAI...>](http://0-infotrac.galegroup.com.unistar.uni.edu/itw/infomark/530/276/34699134w7/?url=rc1_EAI...).
- London, Bette. "Reading Race and Gender in Conrad's Dark Continent." *Criticism* 31.3 (Summer 1989): 235-52.
- Mandel, Miriam B. "Significant Patterns of Color and Animal Imagery in Conrad's *Heart of Darkness*." *Neophilologus* 73.2 (April 1989): 305-19.
- McIntire, Gabrielle. "The Women Do Not Travel: Gender, Difference, and Incommensurability in Conrad's *Heart of Darkness*." *Modern Fiction Studies* 48.2 (2002): 257-84.
- McLauchlan, Juliet. "The Something Human in *Heart of Darkness*." *Conradiana* 9 (1977) : 115-25.
- . "The Value and Significance of *Heart of Darkness*." *Conradiana* 15.1 (1983): 3-21.
- Midgley, Clare. *Gender and Imperialism*. New York: Manchester UP, 1998.
- Murfin, Ross C., ed. *Heart of Darkness: A Case Study in Contemporary Criticism*. New York: St. Martin's, 1989.
- Nadelhaft, Ruth L. *Joseph Conrad: A Feminist Reading*. Hamel Hempstead: Harvester Wheatsheaf, 1991.
- Parry, Banita. *Conrad and Imperialism: Ideological Boundaries and Visionary Frontiers*. London: Macmillan, 1983.
- Schneider, Daniel J. *Symbolism: The Manichean Vision*. Lincoln: U of

- Nebraska P, 1975.
- Sedlak, Valerie F. "'A World of Their Own': Narrative Distortion and Fictive Exemplification in the Portrayal of Women in *Heart of Darkness*." *CLA Journal* 32.4 (June 1989): 443-65.
- Sexton, Mark S. "Kurtz's Sketch in Oils: Its Significance to *Heart of Darkness*." *Studies in Short Fiction* 24.2 (1987): 387-92.
- Stewart, Garrett. "Lying as Dying in *Heart of Darkness*." *PMLA* 95 (1980): 319-31.
- Stone, Carole, and Fawzia Afzal-khan. "Gender, Race and Narrative Structure: A Reappraisal of Joseph Conrad's *Heart of Darkness*." 2 Feb. 2000 <<http://www.chss.montclair.edu/english/furr/pursuits/afzalstone.html>>.
- Thompson, Gordon W. "Conrad's women." *Nineteenth-Century Fiction* 32.4 (1978): 442-63.
- Torgovnick, Marianna. *Gone Primitive: Savage Intellectuals, Modern Lives*. Chicago: U of Chicago P, 1990.
- Trench-Bonett, Dorothy. "Naming and Silence: A Study of Language and the Other in Conrad's *Heart of Darkness*." *Conradiana* 32.2 (Summer 2000): 84-91.
- Watts, C. T., ed. *Joseph Conrad's Letters to R. B. Cunningham Graham*. Cambridge: Cambridge UP, 1969.
- Watts, Cedric. "A Bloody Racist: About Achebe's View of Conrad." *Yearbook of English Studies* 13 (1983): 196-209.
- Whitehead, Lee M. "The Active Voice and the Passive Eye: *Heart of Darkness* and Nietzsche's *The Birth of Tragedy*." *Conradiana* 7.2 (1975): 121-35.

Yarrison, Besty C. "The Symbolism of Literary Allusion in *Heart of Darkness*." *Conradiana* 7 (1975): 155-64.

바트 무어-길버트. 『탈식민주의! 저항에서 유희로』. 이경원 역. 서울: 한길사, 2001.

스벤 린드크비스트. 『야만의 역사』. 김남섭 역. 서울: 한겨레신문사, 2003.

이명섭 외. 『현대 문학비평이론의 전망』.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4.

제레미 호손. 『현대 문학기론 용어사전』. 정정호 외 역. 서울: 동인, 2003.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서울: 여이연, 2001.

프란츠 파농. 『검은 피부 하얀 가면』. 이석호 역. 서울: 인간사랑, 1998.





# Abstract

## A Study of “Otherness” in *Heart of Darkness*

Kang Min-jeong  
Dept. of English Lang. & Lit.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or: Prof. Kim Sun-he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ocus on “otherness” by applying both feminist and postcolonial criticism in *Heart of Darkness*. This work reflects dominant ideologies of late 19th century. Marlow is leading a story as a white male speaking subject who has the narrative authority. He constructs Africa, Africans and women as “other” of Europe, white men and men through his patriarchal and imperialistic discourses. It can be said that Africa, Africans and women all have otherness in common in terms of region, race and gender. Africa is represented as a place of physical darkness, insanity, and sexuality. Africans are completely dehumanized and mistreated before Marlow’s eyes. They are portrayed as ignorant savages, niggers and cannibals with his offensive and derogatory terminology.

Marlow, however, witnesses the shocking realities of the imperialists’ political oppression and economic exploitation while travelling into the African Congo interior. After Marlow sees the corruption and brutality of European imperialism in Congo, he realizes with his critical eye the futility of the white man’s civilizing mission. He experiences his mental conflict because he feels himself an accomplice who is involved in the imperialists’

enterprise. He introspects an evil inside human minds and achieves his moral recognition.

For Marlow, Africa is not a world of other any more. Africa is something great and invincible and has the amazing reality of its concealed life. The stillness of Africa shows resistance toward the oppression of the Empire. It poses a serious threat so as to give Marlow fear and lead Kurtz to his death. Africans are not savage and ignorant but natural and true. They have restraint which Kurtz has lost. The Africans seem to be much more human than the whites. After his return to Brussels, Marlow recognizes Europe as a sepulchral city with no hope in it and Europeans as intruders who don't know anything about life.

In the process of the Congo experience, Marlow frees himself from his imperialistic view and breaks down the fixed boundary such as Europe/Africa. He allows Africa and Africans as coexisting subjects. But for all those changes of consciousness about Africa and Africans, he has little understanding of otherness about women. In other words, he ignores them as others without giving up his patriarchal view. His critical recognition does not reach the consideration of the devalued women characters by the prejudice of his time. They always appear to be objects of darkness, evil, and demons and as poorly delineated, stereotypical and lifeless. For example, Marlow's aunt, two knitting women, and Kurtz's Intended, who represent white women, are neglected and dismissed by a double standard. It can also be said that they remain invisible by the gender difference. However, Kurtz's savage women and the native laundress who represent black women, suffer from a double invisibility by the race and class differences in addition to gender. They are totally silenced, remaining other of other. Marlow sees them as the marginalized and oppressed regardless of his Congo experience.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otherness of women which Marlow does not realize. It is important to know that women play a very important and valuable role in *Heart of Darkness*. They connote the power of resistance and retaliation to get over the oppressive situation. The

women in this work are significant characters who seem to exercise control over the male characters. First of all, Marlow's aunt is obviously a woman of some influence to get him to the Congo. For Marlow, two knitting women, who are uncanny and fateful, seem to be in touch with a truth he has yet to know. Their quick glance hints refusal and resistance of men's dominant words. Intended introduces men to the realm of emotional warmth. She makes Marlow realize the reality he has not known. The native laundress defends her refusal of labor exploitation, and the woman in Kurtz's painting foretells his degradation. The silence of Kurtz's savage women is important to show the power of resistance and the meaning of the possibility of subversion of domination.

In conclusion, Africa, Africans and women have otherness in *Heart of Darkness*. Conrad expresses an anti-imperialistic view by revealing the hypocrisy and absurdity of imperialism through Marlow's words. He emphasizes the power of Africa and the Africans to deconstruct the binary opposition between self and other. From this perspective, studying otherness is needed in this work by synthetically expanding the focus of feminist criticism with postcolonial criticism.